

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19일(월)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산업경제실 소관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산업경제실 소관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산업경제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
(안종혁·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박정수·김도훈·신한철·지민규·박정식·
구형서 의원 발의) 2면
2.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9면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산업경제실 소관 41면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산업경제실 소관 41면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산업경제실 소관 41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안호 경제기획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

히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은 오전에 수소 가스터빈 시험평가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식 일정으로 오후에 참석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 (안종혁·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박정수·김도훈·신한철·지민규·박정식·구형서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종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과 지역 산업체, 지역 대학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별 교류 협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인구 감소로 인한 근로자 부족 문제, 대학 신입생 유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과 글로벌 인재 유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수 해외 인력 도입 및 육성을 통해 전문노동력 확보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와 도내 대학의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유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를 설치하여 인력송출국과 도내 대학 및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사항과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외국인유치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행정의 효과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외국인유치센터의 업무와 기능, 위탁 및 지원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외국인유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외국인유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구 감

소로 인한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와 도내 대학의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유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안종혁 위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유치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근로자 부족 문제, 대학 신입생 유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상담을 위한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민간 위탁 운영 중으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서 정의한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이 본 조례안 외국인유치센터의 일부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외국인노동자 쉼터와 외국인유치센터 간 효율적인 기능 배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외국인유치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 기능을 포함한다고 판단되나 임의규정으로 정함으로써 의원입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2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며 법령 상충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내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고령화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주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유치센터의 설치·운영은 우수한 외국인의 도내 유입을 활성화하고 검증된 인력의 지역 내 정착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안종혁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기획관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윤 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뒷부분의 비용 추계를 보니까요, 외국인유치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관련해서 인건비가 팀장, 과장, 대리, 실무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먼저 내부적으로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방식을 고민하거나 구체적으로 세우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총 8명의 운영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인원을 배치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비용 산출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안 호** 비용 추계는 아무래도 다른 센터들의 유사 사례를 보고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직접 산출한 것은 아닌데 보통 이 정도가 들어가서 해 주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운영 방식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적극적으로 인력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윤 위원** 아직 내부적으로 센터 운영 방식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정하신 게 없는 건가요?

○ **경제기획관 안 호** 센터 운영이 현재 조례안에 따르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몇 가지 절차를 좀 더 거쳐야 돼요, 우리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다듬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지윤 위원** 예, 기획관님이 보시기에, 8명의 인원이 처음부터 근무하게 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운영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많은 인원이 센터에 근무할 때 기대효과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처음부터 근무했을 때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이 드는데요.

○ **경제기획관 안 호**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기능이 작은 기능은 아니에요, 봤을 때.

외국인근로자들을 유치해야 되고 유학생들도 유치해야 되고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 적극적인 기능을 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지금 —산발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전담 조직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이 정도 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지윤 위원** 그러면 현재 도에서는 어떤…….

이런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행하시고 있는 정책이 또 따로 있습니까?

○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지금은 산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외국인 관련 업무가 저희 산업경제실에도 있고 유학생 같은 경우는 기초실에도 있고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최근의 것을 보면 —이지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선문대가 지난 5월에 중앙아시아 5개 국이랑 같이 —대사관들이랑— MOU도 맺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발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지윤 위원** 만약에 센터가 생기면 지금 도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 유치 관련된 정책들을 센터에서 다 위임받게 된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 **경제기획관 안 호** 그것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지는 앞으로 저희가 몇 개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속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위탁해야 될 건지는 한번, 방향성은 맞는데 그거는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지윤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유치 관련 정책들이 혹시 취합된 게 있으면 추후에라도 정리해서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외국인유치센터가 어쨌든 인구 감소 지역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또 대학도 연관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센터의 위치는 지금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조례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인구 감소 지역의 농업 인력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북부 지역의 제조업 분야도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꼭 인구 소멸 지역만을 염두에

두는 거는 아니고 그것 플러스 서북부 지역의 —공업 및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의— 노동자 인력난 해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권과 서북부권 중에서 어디로 해야 될지는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석곤 위원** 그래요.

9개 시군에, 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어서 사실 센터 유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안 호** 예.

○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운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시군에 외국인근로자 담당 부서가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정확히는 다 파악을 안 했는데 대체로 전담팀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외국인 업무를 하는 업무 담당자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운 위원** 업무 담당자들은 있다?

○ **경제기획관 안 호** 예.

○ **이재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위원회 위원이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 **경제기획관 안 호** 예.

○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투자통상정책관을 비롯해서 국장님들하고 도내 시군의 외국인근로자 담당 부서장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도내 시군의 외국인근로자 담당 부서장이, 이게 설치가 안 된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30명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전에 다문화 업무는 담당팀이 있는데 외국인은 약간 좀 결이 달라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30명 이내는 최대치를 설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그다음에 또 시군만 위원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외국 의 공관 관련된 분들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서 좀 폭넓게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운 위원** 15개의 시군이면 15명에다가, 각 부서장을 1명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0명 이내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거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재운 위원** 아니, 위원회에 위원이 안 오면, 솔직히 많아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런데 이게 아까 조례안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들이 일단 도의회에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들어가고 대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력송출국가의 공관 담당자들, 전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씩만 다 넣어도……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 넣고 하면 제 생각에 20명은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이재운 위원** 위원회의 위원이 30명이 라면 대단한 거거든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규모가 큰 것

은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경제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사한 부분이,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현재 천안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잖아요.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과 외국인유치센터의 기능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업무가 똑같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면 앞으로 별개로 운영을 하실 건지, 조례는 따로 있지만 외국인유치센터와 외국인노동자 쉼터와 함께 통합해서 운영을 할 건지…….

이게 별개로 따로 한다고 보면 인력 문제나 예산 문제가 많이 수반돼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의 요인도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외국인노동자들의 쉼터와 외국인유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통합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할 것인지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일단 쉼터는 중복되는 기능이 일부 있는 것은 맞고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센터 안에 쉼터의 기능까지 함께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같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지는 한데 현

재 쉼터를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라고 종교 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우리 외국인유치센터가 사전 절차를 거치면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간도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복성을 없애는 취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외국인유치센터 내에다가 쉼터의 기능까지 함께해서 운영해야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기획관님, 고생하십니다.

외국인노동자의 개념이 여기에서는 지금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쪽에서 하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된 거죠?

그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근로자는 그렇고요…….

○**윤기형 위원** 그러면 농업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만 교육을 하시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다시 초청받아 들어오는 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제 말씀은 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유치 부분도 있고 지원도 있고 다시 들어오시는 부분들도 기존의 지역 주민들과 융합이 잘 되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대상에는 계속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학생들을 저기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오면 보통 각 대학으로 공부하러 가잖아요.

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보내주나요?

그 개념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학생을 유치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일단 대학의 자립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들을 통해서 숙련 기술자로 양성시켜서 제조업 쪽에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파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숙련공을 양성하는 파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기술이 있는 분들이 와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전 교육 필요 없이 대학에서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형 위원** 보통 우리가 외국인 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정원 외로 하죠?

정원 외로 관리가 되죠?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윤기형 위원** 정원 외로 되지 않나요?

정원 외로 되는 거죠?

(「예」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관님!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위원장 김명숙** 저도 외국인유치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유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경제기획관 안 호**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목적에서 근로자 들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리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지역 경제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각 민간이나 민간 기업이나 학교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공공 쪽에서 같이 나서서 해 주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근로자가 목적입니까—가장 중요합니까— 유학생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볼 때, 경제기획관님 입장에서.

○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 **경제기획관 안 호** 둘 중에 하나요?

○ **위원장 김명숙** 예.

뭐가 중요합니까?

○ **경제기획관 안 호** 어떤 거랑 어떤 것 중에서…….

○ **위원장 김명숙**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로자, 유학생.

○ **경제기획관 안 호**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근로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대학들에게 그냥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학의 신입생, 학생들을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

대학이 너무 많아요.

사립대학들도 너무 많고요, 학비도 너무 비싸요, 솔직한 얘기로.

예전에는 사립대가 수준에 따라서 국립대하고 학비가 차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서울이나 지방이나 대학 학비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유치하지 못하는 것

에 대해서— 걱정할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 **경제기획관 안 호** 예.

○ **위원장 김명숙** 목표를 정확하게 가야 되고요, 다만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받으면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교육해서 우리의 자원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건 대학에서 키워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부분들인 거고요, 여기 제3조제1항 제4호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를 위한 안내 및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6호에 보면 외국인유치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등 체류 자격 안내 및 지원이 있어요.

저는 안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주를 위한 지원을 하고 비자 등 체류 자금에 대한 지원을 하고.

대학의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남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산업경제실은.

안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왔다라면 그럴 수는 있겠는데 산업경제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자나 아니면 유학생이냐를 묻는 겁니다.

이 부서가 명확하게, 물론 여기는 통로를 열어 놓으라고 이렇게 같이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아니면 학생들을 데려다가 지역의 인력으로 쓰게끔 교육시킬 테니까 기숙사비도 좀 지원해 주고,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립대나 우리 대학에 전

부 다 무료로 기숙사비 대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충남에 있는 대학에, 예를 들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외국인근로자, ‘근로자’하고 ‘노동자’의 용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수동적인 ‘근로자’의 용어를 썼고 지금 현재는 능동적인, 노동을 제공한다고 해서 ‘노동자’를 쓰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 해봐야 될 사안이지만, 이 노동자들을 교육하겠다고 해서 대학에서 교육비라든가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이미 있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 습니다.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계절근로자죠, 특히 농촌 현장에서.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와 있으니까 대학들과 협약을 맺고 방학 동안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가기 전이라든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법에 걸려서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발표도 했는데 학생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자로.

왜냐하면 목적이 학생으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노동자들이고 대학이 학생들을 데려와서 일정 부분을 한다면 우리가 안 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기숙사라든가 정주를 위한 걸 유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이 부서는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특히 5년 동안 추계비용을 보니까 예산이 16억 9568만 9000원으로 잡혔는데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3억 3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아까 윤기형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통합이 되겠죠, 만약에 센터가 생기면.

물론 또 이것도 성질은 달라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을 하는 데도 쉼터 하나를 운영하는 데 1억 9000만 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외국인노동자들을 좀 이렇게…….

○**경제기획관 안 호** 숙소…….

○**위원장 김명숙** 예, 해 주는 그런 정도라 지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남 도내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어떤 대학이 있는데 사실 거기는 순수하게 그냥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경제기획관 안 호** 일단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조례안에 있는 지원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정 지원이라면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 표현하는 지원은 꼭 재정 지원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 가령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비자 문제도 말씀 주셨지

만 제도 개선이나 건의 같은 게 필요할 때 같이해 주는 방법, 이런 행정적 지원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의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업경제실이 대학의 인력보다는 산업 또 농업을 포함해서 제조업 쪽의 인력난들을 먼저 걱정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그쪽에 기능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생각이 좀 서로 달라요.

여기 제3조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에 도지사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1항에 표기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죽 했는데 행정적 지원이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라면 어떻게 하느냐.

8호에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치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별도로 빼서 지금 “안내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붙인 것은 사실 저는 금전적 지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밑에 6호 역시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비자 등” 이렇게 아주 용어를 못 박은 것은 들어오는 비자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노동력이 필요하면 차라리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에 그리고 인력들한테 이만큼 지원해 주고 우리 충남도내 기업에서 일해달라라고 하

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력을 수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실은 국제와 관련된 현상이 바뀌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자 체류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가서 대학에서 비자비도 얼마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데려와서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매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또다시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회사와 연결을 시켜주고 농장과 연결을 시켜주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 운영한다고 해도 우리가 성과를 예측하는 것만큼…….

더 얻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못 얻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가 지금 ‘외국인유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까’까지 생각을 하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냥 외국인들, 노동자들 하는데 대학에다 위탁해 주고 아니면 어떤 기관에다 위탁해 주고 일부 대학에서 조금…… 어차피 들어오는 유학생들 유치하잖아요.

대학 살려고 유치하는 거예요.

충청남도 위해서 유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업비 얹어주고 이렇게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이나 아니면 유치센터가 필요하다면 저는 독립대학교에다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가 있고 여기에서 운영을 해야 훨씬 더 충남의 정책과 맞게 가고, 이왕이면 도립대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지역에서 기업에 취업을 하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학이 살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러 지금 다 나가거든요.

대전에 있는 대학들, 천안에 있는, 아산에 있는 대학들이 나가서 일부 유치해 오고 이러는데 이걸 대학의 몫이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경제기획관 안 호** 전체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 문구에 관련해서 비자 등 체류 자격 안내 이거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들어와서 몇 년 하다 보면 숙련공이 아니면 다시 또 나가야 되니까 비자를 바꿀 때 ‘어떤 자격을 갖춰야 비자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재정 지원까지 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숙련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안내 지원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이 우선해서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떤 대학이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대학이 할 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전문성을 가진, 센터를 운영

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대학에 줄 거라면 저는 도립대에다가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솔직한 얘기로 대학은 이런 일들 잘 못 합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도립대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수의계약식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김명숙** 아니, 충청남도 기관에서 많은 도비를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필요하다라면 다른 대학에 주는 것보다 도립대에다가 주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맞는 정책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도립대 학이 또 민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이 아니어서 그게 민간 위탁 대상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도립대에서 한다면 직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도립대의 기능 중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명숙** 자, 경제기획관님!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위원장 김명숙** 4조 한번 보세요, 4조.

“도지사는 외국인유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예요,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안 하고 충청남도가 직영해도 되고요, 관련 법인이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이거 지금 전체를 잘 숙지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우려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면밀히 검토

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외국인유치센터를 금방 만들어야 될 건지 더 고민을 해가지고 할 건지, 사실 이걸 지금 통로를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태로 하다 보면 저는 센터부터 덜커덕 예산 세워가지고 만들 것 같네요?

지금 충청남도지사께서는 경영 효율화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공공기관도 25개를 18개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따지면 이게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5년 동안 예산이 16억이죠?

16억 9000인데, 17억인데, 이거 20억 들어갈 거거든요, 사업비에 이것저것 포함하면 한 25억 정도 들어갈 건데.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걸 깊이 고민하고 정책을 꼼꼼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들을 좀 챙겨보셔야 된다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죠.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설립하자는 건 아니고요, 위탁하려고 하는 건 이미 설립돼 있는 민간 단체나 법인에게 업무를 위탁 주자는 거여서 공공기관 효율화랑은 약간 다른 결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김명숙** 경제기획관님?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위원장 김명숙** 우리가 공공기관을 왜 갖고 있어요?

공공기관을 왜 만들었어요?

그 막대한 예산을 왜 해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 위탁을 주는 게 기관을 설립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전문적인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기관을 설립하자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명숙**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제기획관 안 호** 센터 업무를 위탁 준다는 거죠.

○**위원장 김명숙** 아니, 참.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유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유치센터를요…….

○**위원장 김명숙** 센터가 뭘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유치센터를요,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길을 열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명숙** 자, 없는 거 지금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센터예요!

규모가 공공기관까지는 못 가지만 인력을 운영하고 사업이 들어가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법인까지는 못 가지만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산을 1년에 한 30억씩 들어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30억 정도 들어갈.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기존에 이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없잖아요.

새로 만들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위원장 김명숙 예,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센터하고…….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요, 좀 체계화된 기능을, 업무를 정립하자는 취지의 조례로 생각하고 있고 기관을 설립하자는 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기관 설립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센터 설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업무만 정립하세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 센터라는…….

○위원장 김명숙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 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위원장님!

센터라는 게 꼭 기관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위원장 김명숙 자, 예산 안 들어갑니까, 이거 운영하는 데?

들어가죠?

○경제기획관 안 호 …….

○위원장 김명숙 자, 들어가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위원장 김명숙 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공공기관까지는 못 가요, 재단법인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센터예요, 말 그대로.

인력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사업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없어요, 새로 만들어요.

이렇게 생기는 게 새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 제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공공기관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명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단법인은 아니라고!

그렇지만…….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겠다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제가 뭘 걱정하는데요?

○경제기획관 안 호 기관이 설립되는데…….

○위원장 김명숙 제가 센터 설립이라고 했어요.

기관은 아니라고 했어요.

재단법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만들어놓으면 —역할을 충실히 하면— 30억이 아니라 50억이 들어가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조례를 하는데 부서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걱정 안 하고 길게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갑자기 예산 세워가지고 센터부터, 위탁 공고부터 나갈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기관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면 기관의 의미는 뭘니까?

기관장이 있어야 돼요?

센터장이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지금은 센터장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비용 추계 줄이느라고.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 센터장이 있겠죠, 당연히.

센터장이 있으면 기관인 거예요.

그런데 기관은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공공기관 설립 법에 따른 그건 아니라는 의미고요, 제가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명숙** 자, 경제기획관님!

공공기관 설립에 따른 거라면 충청남도에 공공기관 하나밖에 없어요, 개발공사!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하나도, 다 공공기관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공공기관 설립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만드는 거라면 충청남도는 개발공사 하나예요!

지금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계시고요, 의회에서 뭘 걱정하는지를 좀 알아서 잘 운영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규모가 작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당연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국장, 농림축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은 그렇다 치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산업경제실장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큰 규모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규모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예?

기관도 이렇게까지 못 들어가요, 기관도.

솔직히 충남연구원은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겁니다.

개발공사도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드는 거 아니다, 기관 아니다, 법률에 의한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법률에 의한 충청남도 기관은 개발공사 하나밖에 없다!”라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서로 그러지 맙시다.

뭘 걱정하는지는 아실 거 아니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유학생 유치하는 데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라고.

물론 대학에 많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원룸도 좀 팔리고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사실 그건 대학이 그렇고 지금도 대학이 너무 난립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도 어렵잖아요, 지금 대학들한테 사업비 주느라고, 도비도 많이 보태주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경제실이면 경제실답게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이 들어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지원담당관이 있으니까 대학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요.

농림축산국 같은 경우는 노동 인력, 계절 인력,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고요.

균형발전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 문제나 인력 문제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봐도 되는데 제일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센터부터 만들 생각

하고, 센터 어느 대학에 줄 생각하거나 어느 기관에 줄 생각하고, 센터장…….

처음에는 센터장을 그냥 비상임으로 했다가 한 1년쯤, 6개월쯤 지나면 인건비 책정해서 센터장 앓히고 그다음에 사업한다고 이 사업 저 사업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고 25개 기관을 18개로 줄여놓고 지금 기관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기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재단법인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충남도는 다른 기관들을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관광공사도 만든다고 하고 뭇도 만든다고 하고.

그런데 자꾸 그걸 갖고 이건 기관이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위원장 김명숙**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왕이면 우리 도내에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데 대학에 위탁이 가버리면 거의 그냥 대학에서 인력들 하고 사업비 그냥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들고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우리가 여기에 신경 쓰는 만큼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일을 왜 안 하겠습니까?

급여가 낮거나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충남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급여가 높다면 젊은이들도 다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학생들의 정주 여건까지 우리가, 그다음에 비자나 이런 것들의 편의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숙련공이 비자를 갱신하는데 우리가 최대한의 보증을 해 준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답변하시죠.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설립이 된다면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해야 될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고 조언을 받으면서 바람직한 모델로 설립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담을 위한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이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걸로 매번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함께 다 통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혹시 충청남도 워크인 충남센터가 있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니면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전부 다 파악하시고 좋은 방안을 찾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윤 위원** 기획관님, 설명하시느라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 제5조(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외국인유치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능을 포함한다고 판단되나 임의 규정으로 정함으로써 의원 입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5조 보면 사실 심의의 기능만 담겨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의결을 따로 담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많은…….

당연직을 포함해가지고 위촉직까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단순히 심의하는 기구로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 **경제기획관 안 호** 이건 그냥 제 상식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정도까지 깊이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심의’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의결 기능을 포함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 **이지윤 위원** 심의랑 의결은 엄연히 다른 기능 아닐까요?

○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의결정족수나 이런 것들을 규정으로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미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지윤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조례로 만든다고 하면 저는 심의나 의결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당 조례를 발의하신 안종혁 위원님께도 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거나 방식을 정할 때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도 많고 결정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님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실 때 이 부분은 고민하지 않으셨는지 질의드려 봅니다.

○ **안종혁 위원**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의결 기능까지 명시를 해 주면 지금 위원회에 구성되신 분들 자체도 외국인근로자 유치부터 시작해서 유학생 유치까지 전반적으로 목적으로 담고 있던 내용들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심의 의결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저희 의회에 보고되면서 또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완성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지윤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이게 검토보고서에 담겨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봤더니 심의와 의결은…….

심의에 의결이 포함된다고 기획관님이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걸 명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 **이지윤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

자 등 체류 관련된 방식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끼리 좀 논의해 보는 게 어떨지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하고, 여기 6조(위원회 구성)이 있고 또 8조에(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8조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의결이 나오고 또 4항에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 ‘위원회의 회의’는 그냥 단순히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의로만 보고 그다음에 앞에(위원회 설치)는 전체 사업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 설치’로 그렇게 보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아까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 주실 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고 나니까.

5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회에 관련된 기능이나 운영 방법들을 다 정하고 있는데 8조3항, 4항에 의결정족수나 의결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줘보세요.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신데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결 기능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의결 기능이 확실히 포함되는지 명확치 않다”라고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

제가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 “의결 기능에 대한 조문이 명확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조에 보니까 3항에 의결정족수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4항에서 안건에 대한 것들을 위원장이 정해서 부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큰 방향은 정해 주고 있어서 이 위원회가 심의 의결 기능을 갖추고 있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정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조(위원회 설치)가 이제 목적이거나 마찬가지로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유치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유치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뒤에 의결정족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5조에는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라고 가는 게 명확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는 의결이 없는데 뒤에 가서 의결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의결은 무엇이야?”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냥 단순히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냐, 그 위원들이 속해 있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고 이런 거냐 아니면 앞에 5조에서 말하는 1호·2호·3호의 사업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호·2호·3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설치 말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5조에서는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주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종혁 위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명확하게 여기에서 의결을 해 줘야 이 사업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데, 경제기획관님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지윤 위원님께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하신거죠?

○**이지윤 위원** 예.

○**위원장 김명숙**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 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 입장의 표현이므로 “외국인노동

자”로 전체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위원회의 구성 인원 30명은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20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명숙** 방금 이지윤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지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지윤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서른 분으로 하게 되면 성원도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스무 명으로 줄이면서 단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은 당연직이 지금 여덟 분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출하시는 분이 열두 분이신데 이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많이 못 올 때는 집행부의 의지대로 당연직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민간 위촉과 관련된 위원님들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도 위촉할 때 -선정을 하실 때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획관 안 호**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운영할 때도 외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안종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경제기획관님!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지윤 위

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안종혁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4분 속개)

○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세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출연 금액은 충남연구원 등 3개 기관 3개 사업 2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관별 주요 출연 내용은 충남연구원에 대한 신규 출연 총 1건 10억 원으로 도로·생활 안전 분야 AI·메타버스 융합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입

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대한 신규 출연은 총 1건 10억 5000만 원으로 산업부의 2023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에 선정되어 센터 구축, 장비 구축, 기업 지원 등을 위한 도비 매칭 부담분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계속 사업 출연은 총 1건 6억 5000만 원으로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수소구입비 6500만 원 및 수소충전소 시설 개선을 위한 위탁운영비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미래산업과는 충남연구원에 10억 원, 탄소중립경제과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10억 5000만 원, 충남테크노파크에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 계획안

○**위원장 김명숙**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

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6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3개 사업 27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 10억 원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의 출연 근거는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5조입니다.

12쪽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지역확산 전략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가 기획하여 부처에 제안한 사업으로 충남은 도로·생활 안전 분야의 AI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산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27억 6000만 원을 기업지원비로 산출하였는데 어느 기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10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입니다.

15쪽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사용 후 배터리의 대량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재사용 배터리 산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 추진 중인 전기차 실증,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기술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령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사용 후 배터리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해 보이나,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기술 개발 사업 등 연계 사업이 있음에도 '23년 본 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못했던 이유와 출연계획을 통해 추경에 편성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 6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출연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16쪽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재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 측면이나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해당 출연은 타당해 보이나, 위탁 운영비를 증액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선 유지비 등 수소충전소 설비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비 증액의 경우 본 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

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먼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산출 근거를 지적하셨습니다.

운영비 6300만 원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행정사무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소모품 구입비, 자문료, 인쇄비 등이 3300만 원이고 회의장 임차료 1000만 원, 성과보고회 등 일반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900만 원은 전문가 회의, 업무 보고회 등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충청권 ICT 협의체 운영에 135만 원, 전문가 자문 회의에 270만 원, 업무 협의체 운영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AI·메타버스 기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의 기업 지원 계획입니다.

기업 지원 방식은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관기관 1개사와 도로·생활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2개사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업별 솔루션 구축 비용, 참여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컨소시엄은 7월 중 공모를 통해 모집할 계획으로 사업 수행 역량, 수요 부합성, 사업 수행 계획서의 적합성 검토와 서면·발표를 통해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 기업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동차 AI 관련한 사업 때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 또 그로 인해서 저희가 학습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을 본예산에 미편성한 사유입니다.

기술 개발과 연계된 사업임에도 '23년 본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못했던 사유는 사업 기획 당시에는 저희가 단일 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의 사유로 세부 사업으로 분리해서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사업은 '22년 5월에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착수됐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반 구축 사업은 '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공모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23년 2월에 기반 구축 산업의 공모가 있었고 '23년 4월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가 부분입니다.

산업화센터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산업화센터 구축은 11단계의 전체 건축 공정 중에서 총 20개월로 산정하고 '23년도에 24%, '24년도에 95%, '25년도까지 100% 추진 계획입니다.

장비구축 또한 '23년부터 재활용 공정 평가 장비 구축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

니다.

네 번째로 내포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 위탁운영비 증액과 시설개선비 본예산 미편성 사유입니다.

위탁운영비를 증액하려는 사유는 환경부에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적자가 발생한 민간 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료 구입비, 수선 유지비 등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포괄하여 위탁운영비에 편성합니다.

수선 유지비 등 수소충전소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비 증액과 관련해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2022년도에 수소충전소 운영 중 압축기, 냉동기 등 노후 설비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본예산 편성 시 냉동기 교체 비용을 1억 4700만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 4월 냉동기 교체 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과정에서 배관과 밸브, 전기설비 등의 노후 사실이 확인되어 본예산 외에 노후 설비 교체에 필요한 수선 유지비 5500만 원을 편성한 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예산 편성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산 편성 내역이…….

○ **김석곤 위원** 센터 구축 비용이에요, 아니면 장비 구입비용이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센터 구축과 장비 구입이 동시에 되고요, 작년도 예산은 기술 개발입니다.

○ **김석곤 위원** 작년도 것은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김석곤 위원** 요번 것을 얘기하는 건데…….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요번 것은 센터 구축하고 장비 구입입니다.

○ **김석곤 위원** 예, 일단 그것 자료 좀 먼저 주시겠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센터 구축, 장비 구입, 기업 지원에 대해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화 위원** 실장님, AI·메타버스 기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이 산출 근거에서 일반 수용비가 3300이고 회의장 임차료가 1000만 원인데 회의장 임차료는 어떤 회의장을 하는데 임차료가 1000만 원씩 갑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4개 권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충청권 ICT 협의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전문가 자문 회의가 —업무협의체 운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대표로 충청권을 발의해서 이 사업을 발주하는…….

○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일반 수용비로 하는 거고, 회의장 임차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충청권 ICT 협의

체도 해야 되고…….

○ **이종화 위원** 아니, 회의 공간이 없으니까 임차해서 회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회의장을?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회의장을 어디에서 하는데 1000만 원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거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고 7월 이후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 **이종화 위원** 장소는 결정 안 됐지만 대략 산업경제실에서 어떤 회의장을 빌려서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1000만 원을 계상한 것 아니에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본적으로 주된 업체들이 천안·아산 업체가 될 테고요, 또 타 지역 업체는 먼저 AI·모빌리티처럼 외부 기업이 오더라도 우리 지역 기업을 같이 묶어서 같이 기술 이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 **이종화 위원** 아니, 회의장 임차료를 1000만 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어떤 회의장을 임차하려고 하는지, 대략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주로 KTX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우리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 **이종화 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일단 무조건 1000만 원 회의장 임차료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공간을 임차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준비해야지.

그리고 내포 수소충전소가 시설된 지

몇 년 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0년도 안 되고 한 6~7년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설이 노후됐나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게 최초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방식도 변경되고 진화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진화되고 새로운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나오겠죠.

그런데 기존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가 됐다, 그런 상태는 아닐 것 아니에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압축기라든지 배관 교체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문제가 됐고 작년에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올해에 대대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되는 사업비가 생긴 겁니다.

배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요.

○**이종화 위원**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이게 좀 잘못된 거네요,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수소비는 충전소마다 다른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민간하고 차이는 있는데 저희는 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수소차의 보급을 위해서 8800원 정도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쌀 때는 11000원에 사서 8800원에…….

○**이종화 위원** 국내에 민간이 하는 충전소는 지금 몇 개고 우리처럼 기관이 하는 충전소는 몇 개인가요?

민간이 하는 데는 가격이 얼마고 기관이 하는 데는 얼마고, 이게 전국 가격이다 달라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우리 도가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현재 내포 같은 경우는 매입 단가가 9100원인데 9900원에 팔고 있고 아산 초사가 저희랑 같습니다.

그다음에 천안 불당이나 당진시는 그것보다 좀 싸니다.

싼데 천안 불당은 8700원에 사서 9900원에 팔고 있고 당진시도 7150원에 사서 9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이종화 위원** 아니, 지금 답변 중에 가격이 구입 단가가 다른 이유는 거리에 따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당진에서 오다 보니까요.

○**이종화 위원** 예, 당진에서 오다 보니까 당진은 싸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오히려 천안·아산보다 여기가 더…….

아니, 천안은 여기하고 가격이 같은데, 아산이 더 싸다고 그러는데 아산이 여기보다 당진하고 더 멀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산하고 내포하고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아산하고 내포가 같은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아까는 천안하고, 아, 아산하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천안이 8700원에 사서 9900원에 팝니다.

○**이종화 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충전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충전소에서 충전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셀프로

충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충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건비 때문에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가격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보다는…….

○**이종화 위원** 구입한 가격에서 그 사람 때문에 조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가격하고는 요인이 없고요, 다만 지금…….

○**이종화 위원** 하여튼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수소 연료를 수소 폭탄으로 연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많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회 이런 데에 건의해서 법을 빨리 개정해서 일본처럼 직접 셀프로, 이제 차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면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 수소법이 제정됐는데 구체적인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니다.

일단 수소의 분류라든지 우리나라 수소 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만 있다 보니까 좀 미비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일본하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일본보다 비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이 좀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재운 위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에서 산업화센터를 구축하는데 이게 지금 장비 구축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나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센터하고 장비 구축은 한 건물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거기 대행하는 데에서 기업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이 공모에 선정된 업체는 어디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공모에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건축 공정을 하면서…… 장비 기반 구축 이런 거는 다 기술적인 문제예요?

기술 개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반 구축 문제는 크게 설계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장비 구입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다단해서 장비 구매를 할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비 구매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 키아트(KIAT) 내에서 검사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상당히 많이 거쳐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정확도를 높이고 건축 공정이 끝나면 그때 장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TP나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다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는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구축 시기에 맞춰서 장비가 들어오게, 장비가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년에서 많게는 2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재운 위원** 그래서 이걸 동시에 같이 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이재운 위원** 건축 공정이 다 끝나고 준공이 되면 100%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25년도에?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입찰에서 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 **이재운 위원** 그러면 장비 입찰에서 문제가 되면 장비를 구축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중간중간에 또 생길 것 같네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통 국산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외산 도입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또 한 번 유찰이 되면 오는 시간이 있어서 늦으면 한 3~4개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재사용 업체가 있고 재제조 업체가 있고 리사이클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 세 가지 업체가 다 있습니다, 도내에, 민간에서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 관창지구나 내포에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폐배터리 수거센터가 홍성 근방에 있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센터를 별도로 기획하고 있고 자동차 연구원이라는 한국 최고의 연구원이, 지금 여기는 재사용이거든요.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실측해서 어떤 금속이 문제가 있다면 보충해줘서 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배터리가 하나 오면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80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은 자동차용으로는 못 씁니다.

그런 것들의 기능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80%까지 유지가 돼야지 재사용이…….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80% 이상이 돼야 합니다.

○ **이재운 위원** 예, 이상이 돼야지 재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폐배터리가.

사고 난 자동차 중에서도 배터리 손상된 부분을 빼고 그걸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죠, 이 사업 내용이?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양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 10년 후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고, 지금은 사고 나는 차량 또 불량 차량 그다음에 침수 차량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상당량의 폐배터리가 생길 겁니다.

○ **이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장비 구축하고 이걸 관리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있으세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 **이재운 위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이재운 위원** 사실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수 있거든요, 수소보다도.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천안에도 음극재에서 전고체로 그런 업체가 하나 오고 있고 일본에서 주창해가지고 우리 삼성SDI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병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경쟁력이 있고 또 앞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재운 위원**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기형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비 증액하는 건데요, 이게 적자를 많이 봐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적자가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 **윤기형 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적자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천안·아산·당진 이런 데는 수요가 많습니다, 자동차도 많고.

그런데 우리 서해안 내포를 중심으로 이 주변이나 아래 서천·보령도 여기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소차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가 내포에다가 투자해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당진에서 수소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당진에서 제때 공급을 못 해줘서 수소 파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평택에 큰 저기가 생겼고 앞으로도 보령에 SK에서 운영하는 게 생기면 수소 공급에서는 차질이 없고 우리 도는 유리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차를 가진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 **윤기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소차가 확대되고 또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고 더 올라가겠네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가격은 떨어질 걸로 봅니다.

작년에 현대오일뱅크에서 부생수소를 생산해서 현대오일뱅크의 주유소를 활용해서 충전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SK E&S에서도 플러그파워라는 미국의 기업과 별도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공급 업체거든요.

그런 업체를 통해서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분들의 가장 쟁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튜브 트럭이라고 해서 그게 가는데 한 40대에서 50대밖에 충전을 못 합니다, 그 큰 게 가는데도.

이동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인천에서 당진까지 수소 공급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보령까지 이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안전망이 될 거고, 지금 보령과 당진에서 수소를 하고 있는 게 LNG 가스를 개질이라는 화학 작용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수소를 생산하는데 지금 보령에서 하는 건 LNG를 가지고 수소로 개질할 때 수소 1톤이 나올 때 이산화탄소가 6~7톤이 나오거든요.

그걸 처리하는 방법은 SK E&S는 별

도로 이거를 포집해서 액화시켜서 해외의 사막 같은 데에 버리는, 그래서 배를 건조하고 있는 데 비해서 당진은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블루수소 같은 경우는 보령의 방식이 가장 선진적인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부생수소는 화학을 분해하면서 남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그 부분을 공급망을 통해서 공급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려면 수소 공급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올 7월 1일에, 7월 달이 되면 인천에 3만 톤짜리 공장이 생기고 '26년이 되면 세계 최대인 25만 톤짜리가 보령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 지역은 아무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가 멀수록 비싸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윤기형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환경 때문에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전기차가 있지만 도청에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 실장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기차 충전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급속충전과 완속충전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은 완속충전을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급속충전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쪽으로 별도의 선을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 미래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급속충전기를 실질적으로 10대 정도 놓는다면 아파트 한 단지에서 쓰는 전기량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정전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직 감안이 안된 완속충전이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탄소중립이 되면 -2050년이 되면- 지금의 전기량의 2.5배에서 3배 정도의 전기가 더 늘어난다는 연유 때문에, 전기를 계속 써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탄소중립 경제를 하고 오늘도 수소 터빈 하는 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건입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지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금은 아파트의 기둥에 다 전기차 충전소가 생겼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다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도청처럼 저 꼬트머리에다가 해 놓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그런 저기는 아니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두 군데에 있는데 햇빛 가리개도 없고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놓고 탄소중립 찾고 뭐하면 어떡해, 타지 말라는 애기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종혁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실장님이 배터리하고 전기자동차하고 수소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수소차 같은 경우 앞으로 3년, 4년 후에 상용차까지 확대한다고 현대자동차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 들었어요.

거기에서 또 핵심이 연료전지더라고요.

연료전지의 수명이 얼마큼이나.

몇 년간 가느냐 몇 km를 뒀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두 번째로 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전기차보다 더 효용성이 높아서 보급이 잘될 것이다.

그래서 버스라든가 상용차 부분에서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술의 우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또 이 기술이 아무 나라에서나 흥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배터리야 중국에서는 보편적인 배터리로 하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올라온 예산안들이요, 출연계획안들이 제가 보기에 큰 규모,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수소충전소에서 갖고 있는 노후 배관이나 이런 문제들도 사실 도에서 하나하나, 다른 데의 의견뿐만 아니라 저희도 하나하나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추후에 같은 사항이 또

발견됐을 때 다른 기술 업체들이 있는가도 확인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계속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아주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주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이번에 지사님이 중국 가실 때 상하이에서 우리 FCV - 예산에 있는 자동차수소실증센터 - 거기의 기술을 이전 받고자 합니다, 중국이 발전돼 있는데도.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우리가 앞서가야 되고 또 그런 것은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안종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윤 위원** 실장님, 오전에 일정 마치시고 또 오후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출연계획안의 산업 관련해서는 질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AI·메타버스 기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컨소시엄을 다음 달 중에 공모를 통해 모집하신다고 검토보고서 답변에 적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하실지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 회의를 했는데 제일 큰 부분은 교통 부분하고 생활 안전 부분을 했습니다.

교통 부분은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천안의 중앙시장하고 공주의 산성시장이 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 산성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도시형도 있고 농촌형도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퍼뜨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주 산성시장을 기본적으로 AI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분석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생활 안전입니다.

생활 안전 부분도 지역성에 있어서 도시형도 있어야 되고 농촌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는데 단순히 AI 개발만 하는 업체가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재난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데가 같이 합쳐져야 됩니다.

또 그걸 하는 선도 업체가 있어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AI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런 조그만 성과라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 **이지윤 위원** 사실 저도 그래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AI 부문은 정말 특화된 부문이고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중에 그렇다고 우리 지역 업체도 배제되지 않고 컨소시엄해서 같이 한다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가면서 같이 성장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래도 지역 업체를 발굴하는 게 사실 이 분야에서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장님과 담당 팀에서 그래도 유망한 업체를 잘 선정해서서

지역 기업들도 이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더욱 노력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인피니언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상생센터를 하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게 있습니다.

인피니언에서 키우는 게 한 10개고 대기업에서 한 10개를 키우는데 그 안의 AI 업체들을 우리 지역 인재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키워야 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위원장 김명숙** AI 관련해서요, 지금 AI·메타버스 기반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그냥 돈만 대는 거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건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직접 시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죠, 대행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하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 안전 기술 실

증은 예산이 5억 원 그다음에 AI·메타버스 도로 안전 솔루션은 15억 원, 이게 1개소인가요?

1개소로 돼 있네요, 이 자료에는?

그러니까 AI·메타버스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데 7억 6000만 원, 이건 전체고 그다음에 AI·메타버스 생활 안전 솔루션 1개소를 구축하는 데 5억 원, 업체가 참여하는 거죠.

두 번째 참여 업체는 AI·메타버스 도로 안전 솔루션 1개소를 구축하는 데 15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1차 연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입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차 연도 사업이고 총…….

○ **위원장 김명숙**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총사업비는 112억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총사업비 112억 원.

그러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죠?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국비가 75억이고요, 도비가 37억 5000만 원.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 업체들한테, 지금 2개의 업체에 5억짜리하고 15억짜리하고, 이걸 솔루션을 개발하라고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어느 업체입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7월에 공모 선정할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7월에 공모 선정한다고요?

전국으로 합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전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거 여기서 직접 응모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같이…….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사업 계획은 저희가 주도해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해서…….

○ **위원장 김명숙** 4개 시도가요?

그러면 4개 시도가 같이 하는 겁니까, 120억 사업비를 같이 분담해서?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400억 중에 112억은 우리 거고요, 나머지가 3개 시도에 나눠서 갑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총 300억입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400억으로…….

○ **위원장 김명숙** 400억 중에 120억은 충청남도고…….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12억 5000만 원이 우리한테 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잠깐, 충청남도가 112억 5000만 원?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썼습니까?

충남도에서 썼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우리 도와고 과학기술진흥원하고 같이 썼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학기술진흥원이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위원장 김명숙** 과학기술진흥원의 누가, 거기에 과학혁신기술본부장도 없고 원장도 없는데 누가 썼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거기에 전문하는 직원이, 책임 연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실장님, 이거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솔루션이 구축된다라고 지금 장담하세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런 비슷한 사례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고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고자 한 거고, 대전 같은 경우는 도시 안전을 하고 충북은 산업 안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한 건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생활 안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구체적인 건 제안을 받아야 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활 권역에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CCTV를 설치하더라도 그 CCTV의 각도에 따라서 도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명숙** 자, 그거는 5억짜리니까 그렇다 치고요, 도로 안전 솔루션이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로 안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은 공주 산성시장에서 어르신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공주 산성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15억을 들여가지고 공주 산성시장이든, 예를 들어 도시형·농촌형 2개를 만든다고 할 때 그걸 충남도 전체 15개 시군에다 전부 적용할 수 있겠어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가는데, AI라는 게 자가 학습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 **위원장 김명숙** 자, 그러면 솔루션을 구축해요, 15억을 들여서, 5억하고 15억 해서.

제가 어르신들 생활 안전은 이해를 하

겠어요.

5억을 들여서 솔루션을 만들어놓으면, 구축을 하면 이거는 전체 적용이 가능해요, 할 수가 있어요.

일정 부분들, 집 안에 관계된 거라든가 마을회관에 관계되든 공공 집합 장소라든가 이런 건 가능한데 도로 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들이고 전부 사안이 달라요.

아무리 AI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15억을 들여서 개발을 해가지고 얼마를 들여서 다시 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거는 앞으로 매년 발전돼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방점을 두는 건 도로 안전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행태입니다.

차를 보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그게 이제…….

○ **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실장님, 어르신들 도로나 그런 안전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이렇게 들여서 해가지고 다 해결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솔루션, 이건 지금 말 그대로 그냥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예요.

맞죠?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 **위원장 김명숙** 예,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예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다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디 한 구간에다 한다고 하면 그거에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 전부 다 이거는…… 다 지형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이 사업을 시범으로 만들어놔으면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 돼야 되는데 이걸 지금 도로 안전 솔루션 15억 들여서 하더라도 전체에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또 하나, AI·메타버스 이렇게 2개를 했는데 서로 다른 거 아시죠?

메타버스는 지금 전망이 엇갈려요.

한참 유행처럼 났다가 2025년에 메타버스 관련된 비즈니스가 종료된다는 전망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반짝했다가 지금은 더 이상 진척이 거의 안 나가거든요.

진척이 거의 안 나가요.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업계나 이쪽에서는 차라리 메타버스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AI에다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개를 갖고 지금 15억짜리 하고 5억짜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업체가 연구에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메타버스로 갈 수도 있고 AI로 갈 수도 있고, 이 상황으로는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AI하고 메타버스를 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AI 요소를 가미해서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방안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도로 안전 솔루션을 메타버스로 어떻게 구현하실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메타버스가 그 공간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고 거기에 이제…….

○**위원장 김명숙** 자, 그러면 그 공간을 구성해서 —그거를 갖고 가서— 지금 자

꾸 어르신들 도로 안전이나 어르신들 생활 안전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나갔을 때 어르신들이 적용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지금 계속 정부 사업을 따서 하긴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도시형의 도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광주에서 하고 있거든요?

솔루션이나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비싸게 한 업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상금을 걸어놓고 누구든지 다 응모를 해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연구한 것들을 모으기도 하고, 도시가 있으니까 구역구역 있겠죠.

상금을 얼마 정도 걸었다고 하던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 도시에서 도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솔루션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가고 뭔가 이거를 하나 솔루션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한두 곳에 적용하려고 15억을 들여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15억을 들여서 했으면 다음에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실제 이 사업으로 현장에서 실행을 할 때는 150억이 들어갈지 1500억이 들어갈지는 몰라요.

지금 아직 계획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계산하고 이 솔루션을 만들라고 업체를 선정할 때 —실행할 때—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는 넘으면 안 된다는 거 그다

음에 적어도 우리가 이 사업을 1차년도 실행할 때는 “도시형 지역의 자치단체에 한 두 군데 그다음에 농촌형 자치단체 아니면 군 소재지, 면 소재지 이런 것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줘야만 평균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만들어도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운전하는 것 같으면 사실 AI 가능해요.

그런데 운전하고 가더라도 우리가 -차량이 AI, 여러 가지 - 장애물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고 가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도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충남은 도시형도 별로 없고 농촌형은 굉장히 산재해 있고 그런데 업체가 이것 전체를 잘해 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두 개 시범 만들어 놓고 말 거예요, 시범하고 말고.

그래서 AI, 메타버스 이런 용어나 시대로 흐름은 가지만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우리가 뭐가 더 급한가라든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다 하라고 하면 업체에서는, 글썄요?

저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아직 싸이닝(signing)은 안 했는데 광주시랑 해서 중도시 이상, 광주는 광역시이지 않습니까?

거기 건은 거기 광주의 솔루션을 공유하고 우리 도의 소도시 건은 광주에서 공유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각 시도 간에 같이 합해지면 그런 솔루션들이 상당히 더 확장

될 겁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도 그걸 원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국장·과장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력으로 계속될 거고 과기정통부도 그걸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더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는 어쨌든 생활 안전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갖고 하면 가정 안이나 공공 마을회관이든 뭐든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안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금액을 들여서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다 적용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출연계획안이니까 해 드리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걸 갖고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갈 건지, AI하고 메타하고.

아니면 메타버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2025년에는 비즈니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러면 지금 AI가 잘 되어 있어서 메타버스에 적용되기가 좋은 틀이 나와 있으면 같이 가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인공지능 쪽으로 우선 먼저 가는 게 낫지 않은가, 사실 이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깊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업체 어디를 정해 놓거나 아니면 할 업체가 있을까, 아니면 그 업체는 조금 뭘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저는 충남이 너무 착해서가지고 우리가 약간 호구도 있어요, 저기들한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꼼꼼히 챙기고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우리가 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랑 하면 경상도에서 또 관심을 -경북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 많아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같이 협업해서 최소의 예산을 갖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장비 구입비는 얼마, 또 센터 구축하는 데 얼마 이렇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수소 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 1월부터 3월까지 1만 1000원에 구입해서 88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 48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4월부터는 9100원에 사서 9900원에 판매했었는데 위에서 적자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적자액을 약 850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한 2000만 원 생깁니다.

그래서 부족한 6500만 원에 대한 출연

을 하는 건이고 그다음에 수소 유지비에 서 자동 밸브 교체를 5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압력 조작 밸브 교체가 약 800만 원, 이게 업체가 대구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금방 나옵니다.

배관 세척 비용이 약 3000만 원에서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보조 사업에서 1억 2300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선 지원하고 출연계획을 좀 변경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건 됐고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기존의 주유소를 이용해서 오일하고 수소 그다음에 전기까지 같이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보기에는 2~3년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김석곤 위원** 2~3년 안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왜냐하면 지금은 수소의 양이 많지 않아서 인천이 준공되고 현대오일, 우리 지역 대산의 오일뱅크하고 한화토탈 이런 데서 부생 수소…… 한화도 지금 이 사업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런 부분은…….

보령이 준공되는 시점을 '26년으로 잡아도 3년 안에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민간 기업이 뛰어들었을 때는 속도감도 있을 테고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내포 주유소가 걸림돌이 될 소지는 없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이쪽에 있는데 잦은 고장이 있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 **김석곤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래서 예산 쪽에 한 군데를 빨리, 민간에서 출자하면 이 부분은 전면 개편하든 가부간에 결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석곤 위원** 예,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은 KTL이라는 업체가 가장 선두 주자이고 KCL이라는 데서도 합니다, 건설생활기술안전원.

배터리 부분은 그 부분이 있고 민간 업체도 아산에 있는 업체, 천안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한 곳은 리사이클, 그러니까 폐배터리에서 회귀 금속만 빼내는 데가 있고 리유즈,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업체는 아산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 **김석곤 위원** 아니,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 여기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특화된 데입니다.

○ **김석곤 위원** 그렇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김석곤 위원** 거기가 연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연구원은 풍세에 있습니다.

풍세에 있고 약 1200명 정도의 박사들이 있는데, 영암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성상 센터를 나눠 놓습니다.

나눠 놓는데요, 지금 관창지구는 땅도 여유가 있고 또 보령시가 의지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 연구원에서 보령 관창지구로 가게 된 겁니다.

○ **김석곤 위원** 보령으로?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김석곤 위원** 사실 이 부분은 보령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경기 침체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화력발전소 내로 들어갈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오늘 11시부터 수소 터빈에 대해서 한국기계연구원 또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중부발전 그다음에 SK E&S 이렇게 해서 우리 도랑 보령시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석탄을 때니까 CO2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탄소·무탄소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실증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게 보령화력발전소 부지 내로 들어가서 일단은 실증센터를 만들고 나중에 실험하는 거는 1·2호기 폐지된 석탄화력발전소를 활용할 계획인데, 우선은 실증센터를 만들고 그 사업은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서 국비를 예타를 통해서 추가 확보를…….

○ **김석곤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건물 짓는 데 너무 집중해요.

센터 구축하는 데, 건물을 짓는 데 1년도 더 걸리거든요.

보통 짓는데도 한 2년 이상 해야 돼요, 빨리 연구해서 새로운 세대에 대비해야 되는데 건물 짓다 판난다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주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 **김석곤 위원** 우리가 지금 폐배터리를 갖다가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화력발전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약간 다른 부분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동의하고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문화발전소, 미술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도심에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서울이나 런던은.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출입을 못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수소 터빈을 한다든지 혼소를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발전소를 갖고 해야 됩니다.

수소 터빈은 저희가 오늘 첫발을 내디뎠고 21일 날 한화랑 해서 수소 혼소를 — 그동안은 지멘스가 40% 혼소율을 했는데 — 이번에 우리 서부발전이랑 해서 59.5% 혼소를 성공했습니다.

오늘 기계연구원에서 얘기하는데 거기는 지금 약 72%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활용은 폐발전소를 갖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 **김석곤 위원** 어쨌든 정말 챗GPT 관련해서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완전히 우리 머릿속까지 뒤집어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빨리빨리 나서려면 건물이나 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위원장 김명숙**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인데요, 우리가 기존의 자동차 배터리…….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요, 전기차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위원장 김명숙** 몇 %나…….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좀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재사용이 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가 뭐가 부족합니다.

예컨대 니켈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면 그걸 계측하면 그 부족한 게 나타납니다.

그걸 보충해 주는 게 재사용인데 그걸 지금 관창에 넣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리유즈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타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80% 이하가 돼도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컨테이너에다가 폐배터리를 집어넣고 전기 동력을 넣어주면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리유즈고 이제 도저히 못 쓰는 것, 이것은 저희가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희귀 금속을 다 추출합니다.

그게 리사이클인데 지금 관창에서 하는 거는 재사용입니다.

여기에서 모자라는 것을 거기에서 딱 계측해서 넣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195억 원이에요.

그렇죠?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위원장 김명숙** 기간은 3년?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3년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3년이죠?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니까 3년 동안인데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미 배터리 안에 필요한 성분들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계속 장비나, 이게 사람들 인간적으로 할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를 대면 아는데 기계들은 그걸 정밀하게 보고 또 원인이 왜 그랬는지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전체 사업비가 195억이고 국비가 60억에 도비가 40억 5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보령은 94억 5000만 원.

그러면 업체는 보령의 관촬산업단지에 있는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해 준다는 거죠?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거기에서다가 실증센터를 짓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을…….

○ **위원장 김명숙** 여기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그 사업비는? 거기에서 나오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거기에서 초기 투자도 —일부 민자도 들어가지만— 자기들이 거기에 6명에서 8명 정도 가서, 전문가 박사들이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실증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 운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라면 공무원들이 새로 들어가지 않습니

까?

그 인력 부분을 자동차연구원에서 전문 인력을 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수수료를 갖고 하고, 자기들이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일자리가 필요하면 우리도민들이 가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서 또 지역에서 쓰게 되면 지역 경제가 순환되고.

이제 그럴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폐배터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다 이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서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유소나 이런 데처럼, 바람…… 가다가 자전거포에 가가지고 넣잖아요.

바람을 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연구로 끝나고…….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차가 거기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고 거기 는 그 유지만 하기 때문에, 물론 옆에 부품 교체해 주는 업체가 한두 개는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박사들이 거기에서 그 부분을 해 주면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 데이터가 커지면 쉽게…….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제 얘기는 그 거예요.

최종은 뭐냐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최종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문제를 진단해 주고 수선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들은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왜 하겠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공익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걸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충남도가.

자동차연구원은 당연히 그게 돈이 되니까 사업이 되니까 기관을 유지하려면 연구해야 돼요,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돈을 출자 출연을 해 주면 계속 그 박사들한테 연구만 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라고 —우리가 이거를 도민들한테 써야 되는데—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도민들 것만 봐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죠, 정부에서…….

○**위원장 김명숙** 그렇다고 전기 자동차를 금산에서 타다가 내 것이 문제가 있는데 보령까지 가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의 데이터가 쌓이면 ‘아, 이럴 때는 뭐가 부족하구나, 어떤 성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주유소나 이런 데처럼 충전하게 해 준다는 거 아니냐면 공장이 있어서 폐배터리를 가지

고 오면 다시 그런 것들을 충전해서 팔게 한다든가.

최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차츰 그런 기업들이 생길 테죠.

그게 효과성이 있는 데는 바로 실증센터가 생기면서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들이 금방금방 생기는 건데 여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려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보령에 있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기업들이 그런 기술을 이전받게 되죠.

○**위원장 김명숙** 저희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이 사업을 함께하게 되면 2025년까지 195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하다가 더 필요하다고 갈 수도 있어요.

연구라는 게 그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3년 동안 해서 어쨌든 폐배터리를 갖고 다시 충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보령 산업단지 안이든 아니면 충남도내에든 어떤 기업에 이 기술들을 다 이관해줘서 그 기업이 이걸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사실 연구하는 데 뒷바라지하다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연구하는 전문 자치단체는 아니잖아요,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따지고 보면.

과학기술정통부에서 할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 사업이라는 게 여기도 보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에요.

우리는 그냥 도비만 대는 거야.

이게 아마 계획서 넣어가지고 따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충남에 놓거나 자동차연구원이 보령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 대주는 거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저희가 역제안한 겁니다.

산자부에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해봅시다” 해서 벌려놓은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저는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동차연구원이 지식산업센터에 10개의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업 수는 1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스물몇 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이 한 공간에 4개, 5개 들어가는 기업도 있어서요.

○**위원장 김명숙** 예, 들어오기로 한 것 약속 다 지켰습니까?

아직 안 찼죠?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도 내주고 여러 가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도 다 지키도록 해야되는 거예요, 사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해서 들어온 1인 기업들 중에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면 함께 협업을 하든 할 수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스타트업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지원만 하지 말고 요구할 것들은 꼼꼼하게 요구하고 약속한 것들은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충남은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3년 안에 어디까지 완성품이 나와서 우리가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저는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박사들은 끊임없이 만날 연구만 하다 말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답답하면 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지 인정합니다.

다만 이걸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테크노파크에서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는 아닐 테고 채용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거나 할 텐데 협동조합 형태로 위밍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운영은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국숫집을 운영해요.

그리고 돈가스집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자활 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해 주세요, 이 어려우신 분들을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3년 동안 거기에서 위밍업을 해요.

직접 운영하고 3년이나 5년쯤 지나면 이분들이 직접 운영하게 주거든요?

물론 일정 부분 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내포에 이렇게 수소충전소가 출발하니까, 기존에 있으면 우리가 기존도민의 사업을 건드리는 형태가 되니까 안 되는데 지금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 정도는 이런 협동조합 형태로 키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는 건 어

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이종화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합쳐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면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내년에 개선을 확실히 해줘서, 그다음에 다른 충전소가 생기면 과부하가 덜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관에서 다 짓고 있을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그런 가치를 갖고 같이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줘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 뭘 할 수 있더라든가 노하우 부분들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뽑아서 누구 와서 여기에 일자리 있으니까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렵다고 그만두고 갈 수도 있고 이래서 우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출연금 저기 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제출)(계속)

가. 산업경제실 소관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산업경제실 소관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산업경제실 소관

(15시14분)

○ **위원장 김명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먼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9~82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235억 562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54억 424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251억 23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585만 원, 미수납액 3억 1424만 원입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71~283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982억 5560만 원이며 2642억 93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억 364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5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169억 24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미래산업과는 세출예산 현액 407억 4619만 원 중 334억 97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사업 2건 72억 4121만 원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63억 1384만 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9억 27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4만 원입니다.

산업육성과는 세출예산 현액 538억 1547만 원 중 538억 15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는 세출예산 현액 221억 5646만 원 중 221억 49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세출예산 현액 1173억 7510만 원 중 1002억 42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경제정책 연구개발 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68억 326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소상공인 육성 지원 166억 5940만 원, 소상공인 지원 9147만 원입니다.

구 사회적경제과는 세출예산 현액 223

억 5134만 원 중 131억 53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사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91억 720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5만 원, 집행잔액은 243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운용 2294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세출예산 현액 218억 6112만 원 중 215억 13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외국인 노동자 지원 3억 23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6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우수 숙련기술인 —명장입니다— 육성 864만 원,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616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세출예산 현액 199억 4988만 원 중 199억 21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7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732만 원, 기본경비 634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미래산업과, 산업육성과,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33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인공지능 지역 상생 연구원 조성 1억 9500만 원, 자동차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 26억 8550만 원, 태안 청년 창업 지원 5억 275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탄소중립경제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5억 745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1억 634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51억 634만 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5억 2991만 원이며 124억 548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702만 원, 집행잔액은 480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지역 지원에 1759만 원, 예비비 2767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 수납액 및 지출액은 1394억 3872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억 7164만 원, 예치금 수입 1114억 3355만 원, 예탁금 및 원금 회수 수입 261억 9840만 원 등입니다.

지출 세부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222억 7665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034억 6127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131억 984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현재액은 1166억 5967만 원으로 2021년도 말 1376억 3195만 원보다 209억 722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 수납액 및 지출액은 16억 4992만 원이며 수납 세부 내역은 예치금 회수 10억 431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 내역은 사회적경제기금 이차보전금 8563만 원, 사회적경제기금 예치금 15억 6428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사회적경제기금 현재액은 15억 6428만 원으로 2021년도 말 10억 4315만 원보다 5억 211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 수납액 및 지출액은 22억 5803만 원이며 수납 세부 내역은 4개 시군의 자치단체 부담금 6억 원, 발전 3사 기부금 수입 4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4504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 내역은 보령·당진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2000만 원, 정의로운전환기금 예치금 21억 1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정의로운전환기금 현재액은 21억 1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7억 4503만 원보다 13억 679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 1건으로 예비비 192억 900만 원이 증 되었고 25억 49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6억 59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유재룡 산업경제실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현황과 불용액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6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산업경제실 소관 세입액은 1251억 23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이며, 이는 조직개편 전인 2021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수납률 94.2%와 경제실 수납률 99.8%의 평균인 9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다만 미수납액 3억 142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지난 연도 수입이 전체 미수납액의 53%인 1억 6658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44.3%인 1억 3922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과목들의 발생사유, 미수납 사유, 금년도 징수 현황, 조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래산업과 지난 연도 수입에서 불납결손액 488만 원, 탄소중립경제과 지난 연도 수입에서 불납결손액 2096만 원이 발생하여 이들 불납결손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업경제실 세입예산 현액은 1235억 562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254억 4240

만 원과 18억 8611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추후 세입예산안 편성 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263쪽부터 283쪽, 참고 자료 22쪽부터 32쪽 불용액 과다 사업입니다.

2022회계연도 산업경제실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5.6%로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 등 12개의 세부 사업에서 불용률이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 행사는 범도민 지방은행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한 행사 운영비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사 연기 권고로 인한 2021년도 사고이월 1979만 원을 포함하여 467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불용률은 21.3%입니다.

행사 추진 용역 계약으로 인한 사고이월 금액 1979만 원을 제외하면 '22년도 예산 2700만 원에 대한 불용률은 36.9%로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단 발족식이 '22년 3월 25일에 개최되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명장을 선정하여 명장 1인당 기술 장려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년, '21년, '22년에 선정된 명장 15명에게 기술 장려금 지급을 위해 당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 등의 사유로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제2회 추경에 1200만 원, 제3회 추경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2년 당초 계획된 선정 인원 5명에 못 미치는 3명의 명장이 선정되어 불용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21년 결산서에서도 같은 이유로 1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장 선정 추진 상황을 보면 7월에 명장 선정 공고, 9월에 서류심사, 11월에 명장위원회 개최 및 명장 선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명장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 등 사업은 R&D 집적지구 조성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해 R&D 특구조성 추진단 회의 3회, 충남지식산업센터 자문회의 3회, 지면 광고 2회를 위한 비용 4275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행률은 84.2%입니다.

기업 활동 지원은 기업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업사랑추진협의회 운영 사업비 382만 5000원, 5개의 모범 장수기업 선정과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320만 원, 여성 창업 활성화와 장애인 기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170만 원, 총 872만 5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행률은 63.3%입니다.

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수당 지급액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와 위원회 개최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한 삭감 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수요 조사와 분석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불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56쪽, 265쪽 이월사업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이월 사업은 충남 경

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 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3건의 명시이월 6억 2314만 원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3건의 계속비 이월 164억 13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명시이월은 '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쳤으며 경제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는 '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개발전략과로 이관되었고 외국인노동자 지원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의 과업 기간 종료가 '23년도로 예정됨에 따라 이월하여 그동안의 연구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남 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안전 쉼터 확대 사업은 민간 대행 사업자 선정 및 준비 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자 선정 내역 및 쉼터 운영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 보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 129쪽부터 222쪽입니다.

산업경제실의 성과 목표는 3개의 전략목표와 20개의 정책 사업 목표, 35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35개의 성과지표 중 30개 지표에서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률 85.7%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21회계연도의 조직개편 전 경제실 달성률 68.4%, 미래산업국 64.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성과 목표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달성 과제의 목표 점검과 초과 달성 과제의 도전적 성과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사항입

니다.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 327쪽, 387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산보고서에 대한 확정은 가급적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산 검토 중, 반납 절차 진행 중 등의 사유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이 누락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성인지 관련 사항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5쪽부터 373쪽입니다.

성인지예산 6개 사업 755억 4343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을 99.9%에 해당하는 755억 28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개 사업 모두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조성 사업의 경우 '20년, '21년 사업 수혜자의 여성 비율이 높고 사회적경제 분야는 돌봄 사업이 많아 여성 수혜자가 많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여성 인센티브 수혜자 비율 20%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비록 '23년 사업이 종료되었다고는 하나 추후 유사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적절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효율적이고 양성평등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성과보고서 211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여 왕성한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자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의 2021년 성과 목표 달성률은 50%이고 2022년 성과 목표 달성률도 75%에 불과한 바, 성과 목표 달성률이 2년 연속 낮은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 에너지 설치 사업입니다.

결산서 615쪽, 참고 자료 43쪽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태양광 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으로 총 98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설치의 특성상 초기 설계 단계에서 총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축소될 경우 추경에서 감액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총괄 정산 자료 401쪽부터 402쪽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계룡·당진·예산·태안·홍성 등 5개의 시군은 정산 검토 중이고 천안·논산·아산 등 3개 시군은 정산 보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산 검토 중인 5개 시군의 정산액을 살펴보면 계룡·당진·예산 등 3개 시군은 80% 미만의 집행을 보이고 홍성군의

경우 61.1%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불충분한 수요 조사, 홍보 부족 등 행정상 요인에 기인하는 바 향후 추진하게 될 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수요 조사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1166억 5967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3년 설치·운영 중인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에 227억 7905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 대비 209억 7227만 원이 감액된 1166억 596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 투자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금을 통해 충분히 지원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15억 6428만 원입니다.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도권 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 경영 등을 통한 지속 성장 및 질적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 사업비로 8563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6억 677만 원을 조성하여 2021년 대비 5억 2113만 원이 증액된 15억 6428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경제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당 기금을 운용하여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 대상자들의 경영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의로운전환기금 21억 1300만 원입니다.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직간접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사업비 1억 4502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15억 1299만 원을 2022년에 조성하여 2021년 대비 13억 6797만 원 증액된 21억 1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므로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목적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일반 예비비 지출 결정액 170억 원 중 22억 564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7억 4359만 원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결정액 22억 900만 원 중 2억 931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억 1580만 원입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운수 종사자,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금액을 현금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소상공인 12만 9112명, 대리 기사 1만 9830명, 운수업 종사자 9610명 등 총 16만 7025명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한 6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통계 수치보다 실제 지원 대상 수의 감소, 지원 대상 업종 차이 등으로 잔액이 과다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재원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산업경제실-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룡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연도 수입,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의 발생 사유, 미수납 사유, 금년도 징수 현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총 미수납액이 1억 6658만 원으로 납부 대상자의 폐업, 소재 불명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은 1억 3922만 원으로 정산 확정 통보 지연과 시군 반납금 미편성 등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향후 금년도 내에 납부 처리될 수 있

도록 납부 대상자를 독려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사전 예고 공시송달 등 환수 절차를 추진하고 시군은 추경 시 반납금 예산 편성 및 반환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등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제때 처리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입니다.

미래산업과 지난 연도 불납결손액 488만 원은 2018년도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의 참여 기업 중 체납 기업 2개소에 대해 법인의 폐업 및 무재산을 확인하여 결손 처분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탄소중립경제과 지난 연도 수입 불납결손액 2096만 원은 전기공사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인데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13건과 법인사업자 폐업 확인한 것 1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 행사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2022년 3월 충남 범도민추진단 발족 행사 추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997만 원을 연말에 충청권 4개 시도 연합 대표단 발대식 행사비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이견으로 추진이 어려워져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 및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 등은 전문가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고 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맞춰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비를 편성한 것이며, 자문위원회 회의 8건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673만 9000원은 '22년도

내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모집 공고를 추진하여 법적 사항인 신문 광고료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지연되고 동절기 준공으로 보수 공정이 발생하였고 또 관리·운영 주체인 TP와 협약이 지연되어 입주 기업 모집을 '23년도에 추진하게 되어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업 활동 지원은 모범장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 기업사랑추진협의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각 1회씩 개최하여 2022년도 총 2회를 운영하였으며, 집행잔액 320만 원은 모범장수기업 선정을 위한 모범장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를 미운영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모범장수기업 신청 기업 내부 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의 선정 심의대상 기업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연구용역 추진 상황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 연구용역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 4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7월에 2023년도 명시이월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 2월에 용역 기간을 4개월로 연장하였고 '23년 4월에 1차 중간보고 회를 개최했고 '23년 5월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최종보고회를 6월에 개최하고, 본 계획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9월에 수립하겠습니다.

충남 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안전 쉼터 확대 사업 관련 현재 사업자 선정 내역입니다.

동 사업은 이주노동자 환경 개선 및 안전 쉼터 확대 사업입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22년 7월까지 1·2차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 기관이 없었습니다.

3차 공고는 '22년 8월에 1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나 11월에 개최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협상 적격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미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 명시이월을 추진해서 4차 공고를 올 3월에 해서 3개 기관이 신청해서 '23년 4월에 1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성과 목표 달성률이 2년 연속 낮은 원인과 향후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는 주민의 민원과 위치 변경 요구 의견이 있어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 농공단지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9월에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11월에 농공단지 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산자부의 결정에 따라서 작년 6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역사연구원의 사업 변경으로 태양광 설치 공사가 늦어져 12월 준공 후 예산 집행하였기에 시기상 부득이하게 추경 감액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기초 통계 수치와 실제 지원 대상 및 업종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재원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통계 대비 지원 대상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의 업종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 도가 추계한 것에 대비해서 중기부가 지정하는 경영 위기 업종의 범위가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다수 발생해 왔습니다.

또 대리 기사 등 통계 부재 업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위 업종이 다른 경우가 있었고,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소지한 경우 등 예상치 못하게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출 순서를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순으로 사용해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 21페이지에 기초 통계 수치와 실제 지원 대상 및 업종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요.

이게 당시에 대민 지원 모집 공고문이나 홍보물도 있었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되는 거였나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추계를 하고 시군의 협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하는 거였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시군에서 신청하는…….

○**안종혁 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지급하는 형태인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홍보물이나 공고문을 만들었겠네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건 제가…….

○**안종혁 위원** 아니면 그냥 대상자를 시군에서 정해서 합니까, 중기부에서 합니까?

이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내 없이 그냥 시군에서 선정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당시에 홍보는 상당히 했는데 그런 통계 수치가 컸고 중기부에서 위기 업종에 대한 지정을 우리보다 협소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저기가 발생한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요청할게요.

중기부에서 위기 업종이라고 해서 신청하라고 한 공고문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거 신청·접수하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 시군에서 했던 공고문이나 홍보물이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 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불용률이 높았던 사업 중에 R&D 집적 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 활동에서 경제 관련 행사 실비 보상금…… 아, 이걸 제외하고요, R&D 특구 조성 추진단 등 운영과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 행사 그리고 기업 활동 지원 관련해서 정산 내역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지윤 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 내역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자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위치 변경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좀, 이게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서 위치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민원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태양광 사업 중에서 一역사문화 연구원에서 했는데 一 당초에 60kW짜리 구조하고 30kW짜리 구조하고 그 형태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범도민추진단 발족 행사와 관련해서 상세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3000만 원 있었고 2회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고이월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추진단 발족 행사나 아니면 지방은행 유치와 관련해서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상세 집행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했으면 어떤 홍보물을 했는지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 지역 뉴딜 벤처펀드가 있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915억인데요, 이 부분도 2022년, 2021년에 출연을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경제실에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일자리경제진흥원 이렇게 죽 있는데 2022년도 출연금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이다라고 하면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집행액, 잔액 그런 식으로 해서 출연금 전체 해 주시고요, 충청은행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아까 행사비 범도민추진단 발족 행사 그리고 설립 홍보 이걸 또 1억 5000이에요, 보니까.

1억 5000이고, 충남도가 또 5억 원 편성한 걸로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 지방은행과 관련해서는 전

체 사업비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모빌리티·AI 융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비 그다음에 집행 내역, 아주 세세하게 하지 않아도 대략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선패가 5년간 사업이라 올해도 시행하고 있죠?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위원장 김명숙** 이게 결산이니까 2021년, 2022년분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힐링스파하고 웰니스센터하고 수면 산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자료로 대략 어느 정도 사업비가 됐고, 지금 힐링스파, 웰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은 원래 끝났는데 이월 돼서 있어서 한번 봐야될 것 같아요.

2022년 결산에서 봐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기금에서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 사업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세출하고 불용 그다음에 기금에서는요, 모든 기금 다 포함인데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잠시만요.

퇴출하고 불용이요?

○ **위원장 김명숙** 세출.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세출.

○ **위원장 김명숙** 예, 세입, 세출, 불용.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경제실에 있는 기금은 모두 다 포함인데요, 이자를 분기별로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보통 우리가 분기별로 이자 계산을 하니까 징수결정액하고 확정액하고, 그러니까 징수액이죠.

징수결정액은 예산이잖아요?

예산이고 그다음에 징수액은 확정액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초과 수입분이 있거나 아니면 징수결정액보다 못 받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금액으로 표기하시고 그다음에 비율로 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은 상세하게 세부 내역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해서 연도별로 얼마씩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불납결손액은 또 하나 더 자료를 -이건 오늘 제출 안 해도 되는데 시간을 갖고 하나 해 주셔야 할 건 뭐냐면- 아까 먼저 얘기한 건 오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상세하게 결손하기까지의 과정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공문으로 편지를 보냈는지 뭘 보냈는지 이런 문서를 찾아서 전부 기록해서 -이건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저희가 14시에 시작해서 지금 15시 54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23분 속개)

○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는 이제 막 준비하는 과정이라…… 그렇죠?

되는대로 좀 빨리 주시고요, 가공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대로 그냥 복사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래도 혹시, 다음은 이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 행사 행사 운영비가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았는데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하게 돼서 감액 처리 안 한 것 맞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총청권 4개 시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불용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 이견은 주로 어떤 의견들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알기로는 지방은행의 형태 그다음에 대전시는 요새 미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방식을 택했고 그때 다른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집행을 못 하게 된 것만 알고 계시네요, 정확한 사유는 모르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더군다나 그때는 제가 미래산업국장이라 경제 쪽은…….

○**이종화 위원** 아니, 업무 인수인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돼서 그랬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명숙**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경제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투자 은행 쪽, 저희는 일반 은행 쪽 이런 식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같이 일반 은행에, 점포가 있는 은행으로 가자고 했는데 민선 8기에 들어 오면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게 추진이 상당히 어렵겠는대요?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현재 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상반기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실장님!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 등 기업 활동 지원 예산, 아까 추경에 감

액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실 때 공사가 좀 지연돼가지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겨울 공사라…….

○**이종화 위원** 겨울 공사다 보니까 지연돼서 못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비는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비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신문 광고료였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입주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를 신문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요, 입주기업 광고를 하기 위한…… 그 신문 광고료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광고를 하기 위한 광고였다는 거군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충남도에서 충남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건립해가지고 앞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신청을 많이 하게 하려면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것을 미리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아요?

입주기업 광고 광고를 나중에 무조건 내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많은 입주기업들이 광고를 보고 여기에 신청을 많이 하게 하려면 사전 홍보도 좀 필요해서 이 예산을 좀 집행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때는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종화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미운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320만 원 발생했는데 매년 내부 평가를 해서 총점이 60점 이상 된 그런 기

업만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내부 평가에서 60점 이상 된 장수 기업이 하나도 없었던 거네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좀 애석하네요.

이런 거는 거르지 말고 매년 선정해가지고 행사를 하면 좋을 텐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거는 일정 부분 정량적인 부분만 제시하고 위원님들이 평가해서 전체적, 그분들은 정성적인 것을 평가해서 어느 점수 이상으로 해서 좀 다양성을 줬으면 좋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모범 장수 기업 인증을 평년도에는 보통 몇 개의 기업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5개 정도씩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5개 정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5개를 못 하더라도 1개라도, 올해에는 좀 내부 평가 결과가 안 좋아서 그중에서 제일 높은 기업이라도 —60점은 안 되더라도— 하면 좋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는 내부 평가가 60점이 안 되더라도 매년 5개의 기업 하던 것을 —다는 않더라도— 1개 기업이나 2개 기업이라도 내부 평가해서 많이 나온, 그래도 그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을 가지고 회의해서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그게 규칙으로 되어 있

나요, 내부 규칙으로?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내부 규정입니다.

○ **이종화 위원** 내부 규정으로?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이종화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태양광 하는 것.

충남연구원하고 건설 본부에 하던 거를 변경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감액에 편성을 못 하고 불용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처음부터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 설치할 장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게 설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다 확인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로 주차장 주변에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역사문화연구원의 공간이 단차가 있고 경사가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못 하고 옮기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소운동장에 넓게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이종화 위원** 당초에는 주차장에다가 하려고 했다가 건물 옥상에 하는 걸로 변경한 건가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밑에가 좁게 하다가도 저쪽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뼈처럼 둥근 부분이 길게 되고 또 옆에는 경사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아래에는 또 운수종사연수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여기에다

가 그런 시설을 한다면 그 시설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없다라고 검토했을 때 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또 옥상으로 바뀌어가고…….

또 옥상에서도 그걸 했을 때 방수·누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위치를 변경하고 이거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도 행정이 가지 않았나.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 **이종화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정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요,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흥내만 내는 것인가…….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기료도 아낄 수가 있고 또 유휴공간이…….

항상 사람이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게 가장 크죠.

○ **김석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도 했지만 당초 60kW에서 30kW로 반이나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열판의 형태를 좀 바꿔서 당초 신청했던 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반이 준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도면을 요구했던 겁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게 가장 크게 지금은 마을 발전소나 마을의 경로당 이런 데가 30kW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욕심을 좀 냈던 것 같습니다.

○ **김석곤 위원** 아, 마을에 하는 것이 30kW입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30kW 됩니다.

○ **김석곤 위원** 마을회관에서?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김석곤 위원** 아, 마을 발전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마을 발전소나 주민 발전소나 경로당이 30kW가 기점입니다.

○ **김석곤 위원** 경로당이면 아주 작은 건데…….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통 경로당보다는 마을회관이나 주민 수익 창출을 위한 마을 주민 발전소 같은 경우 30kW 기준입니다.

○ **김석곤 위원** 그렇네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설치한 것은 그냥 형식으로 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거기는 한 동 이렇게 있고 수장고에는 더 못 하니까요.

○ **김석곤 위원** 더군다나 에너지를 담당하는 경제실에서는 정말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야지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 했다고 하는 생색은 안 냈으면 싶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종혁 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오기 전에 좀 여쭙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소상공인 육성 관련해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안종혁 위원** 사실 지금 완전히 탈출한 건 또 아니죠.

100% 탈출한 것은 아닌데 이번 결산을 보면 2022년도 결산에도 있지만 2021년도 결산에도 이게 집행된 것이 있죠,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 **안종혁 위원** 제 생각에는 2020년도에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19년도에 시작돼가지고?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죠.

○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권고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난·재해로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저희가 메르스도 겪었고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은 5년마다 생길 수 있다라는 전망을 밝힌 사람들도 있는데 예비비에서 그때그때 빼 쓰는 거보다는 특별회계나 재난재해기금 등을 활용해서 일상화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는 두 가지로 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지금은 기금을 많이 썼습니다.

기금을 많이 썼는데, 우선 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난관리 기금은 말 그대로 만약의 상황에 의해서 그 부분을 확충해 놓은 거니까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년 주기로 온다는 게 한 세기를 중심으로 왔다가 20년 주기로 왔다가 5년 주기로 간다, 이게 좀 예견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특별회계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세워놓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다른 데서도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논의는 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재난기금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산불이라든가 풍수해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질병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도 재난으로 인식하게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위험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도 공감하고 복지환경국이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복지환경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복지보건…….

○**안종혁 위원** 나중에 이 펜데믹 하나가 —보건의 일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더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개연성은 있습니다, 높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오전에도 회의 갔다 오고 고생 많습니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쓰시는데 왜 명시이월,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정책 개발 3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걸 왜 못 쓴 거죠?

결산서 272페이지.

경제 정책 개발 해서 3억인가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 못 쓴 게 아니고요, 당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올해 기구 개편이 되면서 균형발전국으로 넘어가서 이관을 시킨 겁니다.

○**윤기형 위원** 아, 균형발전국으로 넘어갔구나.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리고 작년에 다 못 하니까 올해 해야 되니까 이월시킨 것을 다시 이관시켰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유통 산업발전 구조 개선 해서 166억 7500, 이 건 왜 잔액이 됐죠?

이게 소상공인 육성 지원인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됐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재난지원금 부분입니다.

○**윤기형 위원** 아, 이게 소상공인?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166억.

○**윤기형 위원** 예, 166억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계한 부분하고 중기부에서 지정한 부분이 괴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었고, 대리기사 등이 등록되지 않고 그런 통계가 또 상당히 상이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컨대 사업자 등록은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카페를 한다든지 또

음식업이라고 하고 옷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 달랐고, 1인 기업들이…….

이 사람이 식당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몇 개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밖에 못 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돈을 집행하는데 제일 먼저 재난구호기금을 썼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썼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을 예비비에서 쓰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어서 돈이 많이 남은 겁니다.

166억이 그렇게 해서 남은 겁니다.

○윤기형 위원 이렇게 되면 불용이 많이 된 거잖아요.

166억을 우리가 써야 할 데 못 쓰고, 불용이 많이 됐으니까.

이것 따지고 보면 다른 데에 썼으면 더 긴요하게 쓰일 자금이 못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91억 이 건 뭐예요, 91억 7200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건 공사비로 썼는데 설계하고 올해에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설계하고 계획대로 못 가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그걸 재건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전 등급에서 C가 나와서 그걸 다시 신축하다 보니까 그때 돈이 남아서 올해로 넘긴 겁니다.

○윤기형 위원 아, 돈이 남았구나.

마지막으로 많이 남은 게 보니까 노사 복지 이게 외국인노동자예요, 3억 2300?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외국인노동자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썼지?

지금 인력이 난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인력이 어렵다지만 지

금도 사실 시골은 없어가지고 난리거든요, 외국인노동자들이.

그런데 이걸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외국인노동자 지원이 안 된 게 아니라고.

○윤기형 위원 예, 3억 2300.

결산서 278페이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게 당초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을 했는데 작년 7월까지 1차·2차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3차 공고를 8월에 했는데 — 그때 한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 거기를 갖다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여기는 자격이 안 된다고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올해로 이월이 돼가지고 4차 공고를 해서 3개의 기관이 왔습니다.

3개의 기관이 와서 한 군데가 선정돼서 지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그 기관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그게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주거 환경 개선하고 안전 쉼터 확대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아, 쉼터 얘기하는 게 천안에 있는 것?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쉼터는…….

○윤기형 위원 여기는 천안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천안에 있는 거는 종교 단체에서 어려운 외국인들을 하는 거고요.

○윤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3억 2300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진 부분입니다.

○**윤기형 위원** 당진?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길래, 천안만 나와 있길래.

그러면 현재 당진 쪽을 하고 있는 거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미달성 성과 중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달성률이 전년도 대비해서도 많이 나아지지는 않았는데 이것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이지윤 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영조입니다.

다름 아니라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성과 목표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보다 15% 상향한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적으로 했는데 국내에서 정부가 보급 목표를 전체적으로 줄여버리는 바람에 전국 사업량이 감소해서 구조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윤 위원** 제 기억으로는 올해 예산에도 이게 줄어든 걸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예, 맞습니다.

○**이지윤 위원** 계속 순차적으로 이 예산이 줄어든다고 봐도 될까요?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은 좀 줄이고 고도화된 공장 위주로 구축을 하려는 게 중앙의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는 그런 것을 신규 사업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형이라든지 도내 균형 발전형이라든지— 그런 것들 도비로 대체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원을 도내에 하고자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윤 위원** 예, 만약에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면 기존에 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축소되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줄어들게 될까요?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이게 기본적으로 단년도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지윤 위원** 단년도요?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던 분들이 구축을 못 받는 상황이 오지는 않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권의 조그마한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중앙 부처한테 좀 더 예산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 도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역 창업과 육성 지원에 관한 단위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낫겠죠?

세부적인 거라 혹시 담당 과장님이…… 지역 창업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성과보고서 209페이지에 있고요, 단위 사업으로는 2-9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팀이 담당하시는 걸까요?

○ **위원장 김명숙** 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기업지원과장 황침현입니다.

○ **이지윤 위원** 과장님, 첫 번째에 지역 마을 창고 활용해서 청년 창업가 양성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셨고 입주 기업 9개사를 유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도내 청년들을…….

○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예, 그렇습니다.

○ **이지윤 위원**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셨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부여하고 당진에 놓고 있는 마을 창고를 개조해서 창업 시설을 조성했고요, 지역의 청년들이 카페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유치해서…….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지윤 위원** 그 지역을 당진이랑 부여로 선정하시게 된 배경은 따로 있었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 **이지윤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현재 지역 창업가 육성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보시나요?

창업 방면에서는 어쨌든 창업을 했고 기업이 유치됐으니까 실적 면에서는 인정을 받겠지만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할 때 지역 산업에 영향을 준다든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실 오래도록 뿌리 내릴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고, 그것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지윤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지금 실적으로는 되게 좋아보이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어떤 경제적 성과를 냈는지까지 이 평가지표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예, 앞으로는 그런 사후 성과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완 설명을 올리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데 마을 창고가 이용객도 많지 않고 그런 부분들, 너무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윤 위원** 예, 실장님, 그것과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반적으로 성과 달성률은 이전보다, 통합되기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제가 성과 목표들을 봤을 때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과 목표들이 육성·지원 이

렇게 단순하게 끝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면 사실은 그 이후의 도전적인 목표도 필요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미래 성장성이나 아니면 그다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정책 지표를 다시 한번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안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고, 그렇다고 한정 없이 갈 수도 없고…….

○ **이지윤 위원** 그렇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도전적인 목표도 하나씩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성과지표 달성률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 이후의 미래성까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한 해에 20% 올라간다는 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지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우리가 예산은 세입 없는 세출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서가 전체적으로 세입을 벌어들이는 부서는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현액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예측이 빗나가면 덜 걸히거나 아니면 많이 걸히거나 이러는데, 현재 2022회계연도를 보면 경제정책과에 9억 3900만 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게 돼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초과 세입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뭘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징수결정 차액 생기는 게 보면 12월 정산을 해가지고 예산에 미편성한 부분이 6억 6000짜리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부분이 물가 관리 우수 기관으로 상을 탔는데 본예산에 못하고 '23년도 예산에 한 부분이 있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2억 6000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고지서를 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늦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금액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국고보조 사업 같은 경우 국고보조 집행잔액은 사실 국가가 정해 주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시도비가 매칭되면?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알 수는 있는데 올해에 보니까 그런 건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최종 확정을 —우리 도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늦게 통보가 와서 된 부분들이 여러 건 되더라고요.

○ **위원장 김명숙** 지금 시도 보조와 관련된 부분들도 6억 6000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큼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사업들을 했어요.

그냥 연도 말까지 다 쓰고 나서 정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세입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반납하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더라도 외관상으로 보면 9억 3900만 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한 걸로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결국 내면으로 보면 내부거래를 통해서 반납하거나 이렇게 가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을 하더라도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은 하다 보면 사업비가 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측하지 못하게 남을 수도 있는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정리 추경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에너지과의 행정운영경비가 6444만 원 중에 불용액이 6581만 원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10% 정도가 남아요.

이건 정리 추경까지 정리를 덜해 줬다는 거예요.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감했는지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서류 가지고는.

세세한 서류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행정운영경비에서 10%가 남았다는 건 잘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고 예산을 사장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6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도 역시 보면 4860만 원 중에 불용액이 10% 이상 돼요.

440만 2360원 정도가 불용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리 추경에서 좀 감을 해 주고 조정을 해 주고 한 3% 정도만 남았다면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데 10%씩 행정

운영경비가 남았다는 건 좀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하고 —비록 금액은 적지만— 사실 이 금액들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다음해의 세입으로 본예산에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육성과에서 보면 테크노파크 기관을 출연해 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집행률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 사업들 중에는 미집행 금액도 있고 —그게 한 106억 정도 되고— 이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70%밖에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노동정책과의 일자리진흥원 같은 경우도 한 91%, 91.7% 정도.

제가 지금 94% 있는 경제진흥원은 얘기를 안 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집행률에서 언제부터인가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은 집행하지 못한 건데 제하고 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고이월이나 이월사업비는 당해 연도에 할 때 집행하지 못한거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은 경제소상공인과의 지역경제육성기금도 집행률이 84.9%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업…… 아, 이거는 그래도 90%가 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릴게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집행 내역을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돈이거든요?

2023년도까지는 350억 정도 되죠, 350억 정도?

그다음에 2024년도 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늘어나면서 720억인가 75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귀한 돈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에너지 절약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에 5000만 원이라든가 에너지 정책 현안 업무 추진에 58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쓰여지는 것들은, 저는 사실 이런 예산들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이나…… 다른 지역도 다 하는 사업들이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는 이 기금이 있으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쓰는데 2022년도와 2023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쓰여져요.

그래서 2024년도는 좀 재조정을 전폭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로당, 제가 도정 질문도 했는데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충남도가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음에도 굉장히 자부담이 야박했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좀 늘려서 마을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마을이라고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땅이 있는 마을에서는 받을 수가 있고 마을 발전소로 지원을 하면 좋은 게 개별로 하려면 반발이 좀 많아요,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마을의 수입으로 하게 되고 자부담을 줄여주면 그게 오랫동안 마을의

수입으로 가고 단, 조건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이 비용의 몇 %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지정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 중의 30%는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쓰도록 한다면가 이렇게 하고 자부담을 좀 줄여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지속가능발전포럼 이런 데도 한 4500만 원 예산이 쓰여지고 -포럼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이나 이런 부분도 5억 4000인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있는 사업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갖고는 충남만의 특별한 사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하면 중앙 부처에서 우리가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나 예를 들어서 산업과 관련된 부서 아니면 우리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유리한 선점을 할 수가 있는 씨앗이 되는, 자본이 되는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오늘 결산 자료를 보면서 에너지과나 산업경제실이 기존에 하던 관성에 의해서 계속 추진한 바가 많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제안 공모를 해서 사업화를 한다면지, 예컨대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동네 어르신들이 분리수거를 하면 거기에서 투명 저기를 하면서 그걸 다 떼는 그런 작업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겨울 동한기에 마을 뒷산의 폐목 같은 것을 모아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2023년도에 보면 더 심각해져요, 사실은.

에너지 정책 현안 업무 추진에도 들어가고 위원회 운영에도 4658만 원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 교육도 당연히 우리가 일반회계로 세워야 되고요, 탄소중립경제포럼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서 예산을 갖다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000만 원.

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 교육도 사실은 여기서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좀 제대로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6개 시군과 관련해서는 70%를 주고, 도 분이 25%인가요?

25%죠?

25%를 도가 받는데 이거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35%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35%, 예.

이건 다른 시군들도 함께 써야 되는 건데 흔히 이걸 갖고 공공기관의 전등 바꾸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요, 공주·부여·청양·논산·계룡·금산 이런.

그러면 사실 여기는 오히려 탄소를 저감시켜 주고 그다음에 탄소를 저감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정책으로 가야 돼요.

탄소중립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 탄소중립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만들고, 중앙 부처에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예, 결산은 저희가 단순히 금액을 제대로 법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숫자를 놓고 정책이 제대로 됐는가, 목표대로 갔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기형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노사 안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한다, 그거 있죠?

성과보고서 185페이지.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윤기형 위원**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노동 권리 구제 횡수가 48건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실장님께서 가장 남는 게?

노동자 권리 구제,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도의 그 노동자들이 정말 감사하고 실장님한테도 감사하는 그런 것이 있었나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좀 변명 같은데 이게 작년도라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

○ **윤기형 위원** 아, 아니시구나.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데 조금 아

까 이지윤 위원님 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64, 68%가 84%로 올랐으면 엄청나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좀 요령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자책을 혼자 해 봅니다.

10% 이내로 올랐다면 많이 노력했다고 보이는데 한 20%가 갑자기 오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기술이 늘었다는 얘기라, 저희가 앞으로는 진짜 성과지표를 잘 작성해서 누가 보더라도 성과가 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사례를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될 하고 있다, 그런 스토리 같은 것이 나오면 보기에 훨씬 더 좋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

○윤기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내년도에 결산보고 할 때는 그렇게 사례 좀 갖다가 저희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준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187페이지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선패’라고 하죠?

’21년도에는 70억이 쓰였어요.

70억 4100이 쓰였는데 작년에는 46억 6200, 이 예산이 준 이유가 있나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일 중요한 게 고선패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 부품 위기 기업, 자동차 부품 기업하고 석탄화력발전이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저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 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참여하는데 화력발전 부분은 정규

직의 평균 연봉이 한 9000만 원 됩니다.

그다음에 그 하청 기업도 6000~7000이 됩니다.

그런데 고선패 하는 건 2000만 원, 3000만 원의 보수를 주는 그러한 걸로 하다 보니까 참여 자체를 안 합니다.

자기들이 받던 보수의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줄였습니다.

석탄화력 부분은 참여…… 고선패 사업들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접고 가자.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가서, 그분들은 현 직장에 있기를 가장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 아니면 큰 저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 고선패 부분을 하는 게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가 너무 많이 안 와서 지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63쪽에 보면 충남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한 외투…… 아, 외투기업 이거는 아니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투자…….

○위원장 김명숙 예, 이거는 투자통상 쪽이고, 133쪽에 과학 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 산업 발굴·육성은 산업경제실 업무 맞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 성과지표를 보면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목표 달성 수 이렇게 했어요, 건수 해서.

이게 보고서, 계획서 등 제출 건수예요.

어디에다가 제출하는 건수인 겁니까?

2022년도에 14건을 제출했다라고 하고 달성은 100% 했다고 하거든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지단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과학 기술 정책 수립 또 지식재산 조사·분석, 지역 R&D 기획 평가·관리 이런 부분인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과학 기술 정책 수립을 하면서 저희 도가 과학 기술에 있어서 열위 지표가 한 15개, 14위 이하가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는 것보다는 단순히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막연한 게 있어서 저도 상당히 질책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건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이 제출 건수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제출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고서를 만들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걸로 하자고 하면 다 100%, 100% 이상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지표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저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이도가 있는 목표로 삼고 그걸 달성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선정하는 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181쪽에 보면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사회 안정망 편입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성과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수에 근로자 수로 했어요.

근로자 명수로 하고 그다음에 3대 공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산정한다고 했는데, 2021년에 2만 5000명이죠?

그렇게 하고 3만 명 넘게 줘서 120%를 달성했다고 하고 2022년도 역시 2만 3000명을 한다고 하고 2만 2458명, 97.6%를 달성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2021년과 2022년을 보면 사실 성과 목표는 2022년이 더 낮아요.

그렇죠?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위원장 김명숙** 더 낮고, 그렇게 놓고 보면 달성률이 훨씬 더 떨어지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본 위원은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나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수에 근로자 수로 하는 것보다요, 지원 기업 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인 미만 사업자들인데 10인 미만 사업자들 중에도 괜찮은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10명이 있는 곳을 더 많이 지원하게 되면 더 늘어나잖아요.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누가 좋아요, 이건?

노동자들에게 좋지는 않아요,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주한테는 좋죠.

내가 10명이 있으면 10명분을 지원받

고 5명이 있으면 5명분을 받으니까 사업주한테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업체가 많아야 더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노동자 수가 많은 데에다가 지원하면 도는 성과 달성하기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인 기업이라도 2인 기업이라도 3인 기업이라도 어려운 기업들이 이 사업을 지원받게 더 의미가 크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 성과지표를 할 때 과연 근로자 수로 해야 되는지, 노동자 수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업체 수로 하는지.

전년도에 우리가 업체를 얼마만큼 했고 노동자 수를 얼마만큼 했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 우리가 지표를 산정할 때 기업체 수는 몇 개를 늘리고 노동자 수는 어떻게 늘릴 건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얼마를 지원했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이 노동자라고 하면 우리 사장님이 내 몫을 받아 가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나한테 금액이…….

이 4대 보험을 내 월급에서 덜 공제한다면 노동자 수, 근로자 수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표를 산정할 때도 어렵더라도 제대로 산정해서 균형도 맞추고 비율도 맞추고 이렇게 가는, 지표 산정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2024년도에는 2023년도 것을 전체 점검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개인들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헬스 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다각화 기업 지원 건수 같은 경우도 93건을 성과 계획 목표로 삼고 110건을 달성해서 118%를 달성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전부 완료 됐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올해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이 지원 건수가, 성과지표에서 여러 가지로 계속 지원 건수, 지원 건수, 지원 기업 수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금액으로 지원을 했다는 뜻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자기 편향적인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인정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경제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저는 성과지표를 금액이나 아니면 건수나 수치를 높게 잡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지표로 삼았을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아, 이 부서가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그리고 설령 100%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아,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구나’, 그다음에 이 성과 목표는 사실 보면 단년도가 아니에요.

3년 치를 놓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터 지표가 조금씩 올라가서 3년 됐을 때 어려운 지표를 갖고 100% 달성하면 매우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표도 정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에서, 충남도 같은 경우도 실국 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 성과를 보는, 성과와 관련된 걸 보는 -평가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보거든요, 지표를 얼마나 어렵게 잡나.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바꾸고 저희가 7월이나 8월경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교육을…….

지금 실·국장이나 과장들은 성과 평가를 할 때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받는데 이 부분은 아직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제도 정착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데 전문가 학습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것 오래됐습니다.

2016년부터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지방재정법 제5조하고 제44조의2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정한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런데 제가 이것 좀 자세히 보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유리하게 살짝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방은행과 관련된 홍보 예산이

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죠?
(「대답없음」)

웰니스 재활 스파 프로그램 운영, 합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재 멈춰있는 상태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도 감사를 통했고 센터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절차도 밟고 있고…… 물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고자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제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수면 산업이 유행하고 뭐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 묶고 힐링스파, 웰니스 센터 그다음에 힐링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수면 산업.

이렇게 하면 5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웰니스 센터만 천안에 있고 나머지는 다 아산에 가고 그다음에 아산시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도 상당 부분 갖고 또 대학하고 함께하는 R&D 사업이에요.

그런데 손에 잡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걸로 볼 때는 멋진데.

그리고 성과나 이런 쪽에 보면 성과가 잘 나온 걸로 지표는 나와요.

참 답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센터장이 책임지고 사표 내고 그만둔다고 해서 저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를 놓고 볼 때 아까

우리가 출연금 할 때도 그렇지만 어떤 기관을 만나느냐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도가 처음에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간 다음에 주문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으니까 한번 R&D 사업으로 해봅시다. 우리가 국비를 따올 테니까 도비를 얼마만, 한 10%, 20%만 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사업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사실은 미리미리 연구용역을 -아주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사업이 적절한지,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우리 산업경제실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어서 1차년도, 2차년도에 우리가 그런 업체들을 찾거나 그런 대학들과 연관되어 있으면 찾아서 가야지 충남에 있는 대학하고 가니까, 다 의과대학하고만 가니까 거기 교수님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개인 성과는 다 내잖아요, 논문도 전부 다 되고.

그런데 우리한테 남는 건 없고 사업은 이렇게 몇백억씩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예산들이 있으면 차라리 적게라도 스파 사업하는 데다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한 2년 안에 사업이 완성돼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유의 깊게 보고, 정치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전임 시장님께서 거기에 의지를 갖고 했습니다.

천안 부분은 또 애초에 위치 선정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다시 보면서 수면 산업

같은 경우는 TP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는 거를 TP가 주관 기관이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서 전문 기관을 섭외해서 다시 바꾸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주시고 제3자의 눈에서 그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거든요?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 미래산업과 지난 연도 수입 불납결손액 488만 원 이것 결손 처분하신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산학연이면…….

지금 체납 기업 2개소라고 했는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공주대 건입니다.

○**안종혁 위원** 공주대 쪽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천안이네요, 그러면?

산학연이면 천안입니까, 공주입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천안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그 법인이 폐업을 한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폐업을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낸 것은 확인하셨던 거겠네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납부 고

지, 독촉, 환수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폐업하고 없어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분…….

○**안종혁 위원** 그러면 산학연이기 때문에 혹시 산학연 센터에 입주되어 있던 기업입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참여 기업이었습니다, 입주는 아니고.

○**안종혁 위원** 그냥 참여 기업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참여 기업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징수를 위해 고지서 발송하는 것 이외에 혹시 재산 조회나 이런 거는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또는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정리 및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게 지금 2022년 7월에 결산 처분을 하셨는데 지방세 징수법을 보면 말씀하신 내용은 또 그해 1월 28일 날 개정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바로 적용을 하셨길래, 당초에 이 개정된 법률이 없다면 1년을 더 있다가 해야 되고, 그런데 추후에도 혹시—공주대학교라고 하니깐요—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제106조제3항을 보면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대표자 성명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업을 계속해서 하신 분들이 나타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염두에 두어서, 추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은 제

가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을 통합하고 나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보면 솔직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정책과에 있을 때 하던 분들이 TP에 와서 받고 또 옛날 농업에서 하던 분들이 이름만 바뀌서 업체만 늘려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이중 수혜 되지 않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1월부터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해서 TP,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도의 기업지원과.

그 3개부터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까지 해서 눈 밝은 사람만 찾아가는 그러한 것은 방지하도록, 제 소신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이거는 이런 사례들이 정착이 안 되면 비슷한 악성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씀 주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에 보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해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이름하고 주민번호는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라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말씀 주신 대로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행정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밑에 있는 탄소중립경제

과 지난 연도 수입 불납결손액 2096만원도 제가 보기에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거기는 과태료, 과징금인데 폐업을 해버리고, 그것도 비슷한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 **안종혁 위원** 예, 그러면 폐업하면 안 내도 되는 거네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일정 기간은 부과를 해야죠.

○ **안종혁 위원** 예, 5년 동안은 계속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고지서?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 **안종혁 위원** 그런데 그게 소액이다 보니까 통장 가압류나 임대 보증금 가압류나 이런 것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안종혁 위원** 금액이 좀 되면 가압류나 이런 것들은, 가압류·가처분은 솔직히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데…….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혹시 2차 자료 왔습니까?

여기에 그냥 1차 조금만 오고 자료가 지금 안 오는 것 같거든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차 5건 추가로 왔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제가 친환경 모빌리

티·AI 융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연차 사업이기는 한데 2022년도의 집행을 좀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 그 자료에 있습니다, 10번.

○ **위원장 김명숙** 지금 들어온 자료에 있다라는 건가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봐야 돼서…….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목록 2차 10번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참여 기업들은 전부 도내에 있거나 아니면 전부 충남에 법인을 뒀습니까, 지정 법인?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뒀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어디 어디에 뒀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천안·아산 지역이 주된…….

○ **위원장 김명숙** 천안·아산 지역이에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위원장 김명숙**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이렇게 자료 주시면 제가 질문하는 것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님?

총사업비가 72억 1100만 원이거든요, 국비 포함해가지고?

국비 37억 3200만 원, 도비 20억하고 민자까지 하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얼마인지 자산 취득이 얼마인지 운영비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없죠?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들은 그런 거거든요.

인건비가 지금 대략 50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인건비를 얼마 집행했는지가 궁금하고 그 인건비 중에, 제가 계속 주문을 드렸거든요.

우리 충남 사람들이, -서울, 경기, 충북 오송에 있는 업체가 가장 크고 예산을 많이 가져갔는데 - 우리가 거기에서 연구원으로 몇 %나 함께 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2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여기에서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건데 업무추진비 6600만 원하고 큰 틀에서 나눠놨는데 이게 실제 이렇게 나눠놓은 것하고 집행할 때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자산취득비가 12억 1000만 원인데 이 자산 취득은 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자산 취득은 의무적으로 기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그 일에 활용되어야 되고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10년 동안 그 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3년짜리 사업이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자산을 우리가 실증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 회사에서 실증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겠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다음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명숙** 지속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 회사하고는 사업이 끝났는

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게 기본적으로 3년이라도 저희가 기본…….

위원장님, 3년 동안은 하고 그 이후로 5년 동안 성과확산 기간을 뒤서 관리를 한답니다.

○**위원장 김명숙** 성과확산 기간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개발을 하고…….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그 기업이 이걸 계속 갖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갖고 하고 저희가 5년…… 그러니까 저희가 8년을 관리하는 거죠.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원은 아니고요, 그 성과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결국은 그 회사 것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5년 지나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게 지금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 신종 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의약품, 진단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259억 8800만 원인데 도비가 58억 7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국비가 100억인데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설계 단계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 내에 두지 말고 학교 바깥으로 나오라고 해서 R&D 집적지구

로 나와서 센터를 짓고 지속적으로 활용
할 수 있고 그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
도록 그렇게 바꾼 제도 중에 첫 사업입
니다, 이 사업이.

○ **위원장 김명숙** 여기는 보니까 순천향
대에서 분석 장비를 현물 출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 그
럴 때도 저는 서로 자세히 협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필요한 장비만 살 수도 있고,
그렇죠?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위원장 김명숙** 이게 현물 출자 2억
50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259억짜리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분석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가
갈 수도 있고 해서 사업이 끝나고 난 다
음에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
게…….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 서로 사업을 가져와
서 하는 걸로만 해오고 그다음에 완성된
것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취득이나 이런 부
분들 그다음에 인건비에 있어서 사실 전
체 72억 1100만 원 중에 50억이면 굉장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놓고 볼 때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면 도내에 기업이 마땅
히 없으니까 충북, 서울, 경기의 이 업체
가 가장 많이 인건비들을 가져가요.

그런데 충남에 있는 기업에서 이걸 같
이 연구한다라고 하면 우리 충남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해서 인건비들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활이 되고 지역 경
제가 순환되는데 그래서 되게 참 아깝다

라고 하고 오죽하면 연구진을 좀 충남에
서 뽑아서 파견이라도 보내야 하지 않겠
나라는 주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년도 사업 가니까 다
시 한번…….

전체 사업비 중에 50억이면 큰돈이니
까.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예, 그걸 다시 한번 촘
촘하게,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기업별로 인력을, 또
이제 급대로 급여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마련해
서 함께 검토하도록 추후에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리고 위원
장님!

한 말씀 더 올리면 지금은 대학에다가
사업비를 주면 학교 내에다가 건물을 짓
고 장비 5년, 건물 10년 되면 자기의 소
유가 되어 버립니다.

제가 그런 사업들을 여러 건 보고 작
년부터 대학이랑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바깥으로 나와라.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마이크로바이
옴 사업이고 두 번째가 청양에서 준비하
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야 기
업도 활용하고 그분들도 자기들이 자생
력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
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 가지 더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사업들을 평
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미래 먹거리
를 위해서 모빌리티든 AI든 이런 사업들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
면서, 이제 충청남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인재들이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는 부서니까, 상임위니까 이 정도 알고 있는 거고 거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이런 데에다가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갖고 한 3년 정도,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걸 운영할 인력들이 필요 하더라든가 기업에서 이 제품을 생산해 낼 때 필요하더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아, 나는 지금은 중소기업을 다니지만 -아 니면 내가 큰 대기업에 다니지만- 내가 이 중소기업에 가서 중심이 한번 되어볼 까, 충남에서?’ 이런 부분들을 마음을 먹고 있어야 인력이 오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표 쓰고 오거나 어느 날 갑자기 박사 돼가지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도 함께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홍보해서 자기의 진로를 미리 마음먹고 있어서 때가 되면 와서 우리가 좋은 인력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작업도 매우 중요 하니까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아까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고선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2023년도면 이게 다 끝나나요?

원래 5년 동안 하기로 했었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고선패 사업에 있어서 다시 재취업 하 시려는 분들의 소극성을 맞춰줘야 됩 니다.

소극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노동

부에서부터 톡톡톡 정해져 내려오고 또 오래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적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 해서 말 그대로 그분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자동차 부품 위기 때 보니까 위기가 발생하고 8개월~9개월 되니까 그때 서야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그 당시에 재취업박람회를 북부상공회의소에서 했는데 북부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상공회의소에 30년 이상 있어 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처음 봤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나 노동자나 지금 당장은 봉급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도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시간을 줘야 되고 우리도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 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당사자들의 호응 문제였습니다.

그분들의 소극성에 맞는, 과목이나 뭔 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거 든요.

더 노력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는 이 사업이 원래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사업을 수행하는 일자리진흥원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진행을 못 하고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만 했기 때문에 2년 남은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시고 이 사업 내에서도 사업 전체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정부를 설득해서 사업 설계를 다시 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미 한번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정부에서는 다 했다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정말 고민해 주시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데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충청남도하고…… 어느 정도 될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경북하고요.

○**위원장 김명숙** 예, 경북 정도 되기 때문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중앙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사노위가 너무 늦습니다.

이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더 부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애초에 사업 설계가 잘못됐고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중앙에서는 연구하시거나 그냥 행정적으로 하고 현장에 내려왔을 때는 또 현장의 입장을 잘 모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은 수행은 돼요.

왜?

월급 받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든 되기는 돼요.

그런데 이걸 중간에서 바라보는 위원님들이나 도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결산을 보면서 지금 이게 또 자세하게 안 들어왔어요.

집행 내역이 이렇게 오면 안 돼요.

결산에서 자료 요구는요, 상세하게 와야 돼요.

영수증까지 다 그냥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오느라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사업도 다시 한번 결산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상세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사업 설계는 다시 중앙 부처하고 적극 협의를 하시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 사업 중에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63.3%거든요?

그런데도 R&D 집적지구 사업은 성과에 가보면 잘했다고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63.3%라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2022년도 부분인데, 그래서 금액이 크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을 할 때는 징수결정액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하나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끝까지 하지 않았

기 때문에 기간 채워서 그냥 불납결손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물론 신용보증재단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신보 같은 경우도 대손상각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계속 금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상임위의 결산 심사만 잘 받으면 된다고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한번 자세하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숫자를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가를 숫자로 확인하는 게 결산이고요, 그다음에 결산은 사업의 시책을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했는지 숫자를 통해서, 예산 집행이죠.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숫자로 나타나는 게 결산 심사인 거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목적과 수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면 시책이겠죠.

수단이라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일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불용만 없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불용은 많이 줄었어요.

제가 3년 전에도 경제 부서 업무를 다뤘는데 그때보다 불용은 사실 많이 줄어

서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를 보면 엇그저께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다고 통계 수치가 들쭉날쭉합니다.

부도율이 0.18%였다가 작년 12월에는 0%였다가 또 0.12%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절적인 큰 문제라든지 큰 이슈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유동성이 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우리 도내의 경제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자료가 막 와서 제가 이것까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은행 관련해서 4억 4000만 원, 제가 뒤에 십만 단위는 빼겠습니다.

사고이월도 있었고요,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 자치단체 부담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 추진 해서 1억 5000의 사업비가 영상 제작이나 옥외전광판, 온라인 영상 송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충청은행 지방은행 설립 홍보 영상을 보면 왜 우리 충남에 지방은행이 필요한지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지방은행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호성의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정확하게 목표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4400만 원을 들여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옥외전광판 광고도 역시 서울시청이나 서울광장이죠, 그다음에 경북

구역, 해태제과 빌딩, 용산, 영등포 대승 빌딩 이런 데에다가 전광판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에게 충남이 왜 지방은행이 필요한지가 홍보 영상 속에 안 나와 있는 걸 갖다가 홍보하는 건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역사 내 전광판 광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홍보 제작물도 우산, 여행용 파우치, 유산균 제작 이런 걸 해서 나눠줬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런 홍보 —옥외 전광판에 광고를 하는 거보다— 연구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포럼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분들을 모셔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홍보가 우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결산심사니까요, 이렇게 쓴 건 아주 잘못 쓴 겁니다.

아주 잘못 써서 —목적대로 잘 쓰지 못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지방은행과 우산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유산균 제작, 여행용 파우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몇십만 원을 쓰더라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 서류만 보고도 공감입니다.

하여튼 적재적소에 쓰고, 홍보의 가장 주안점은 상대방의 감성을 건드려서 그 필요성을 설파하는 건데 —제가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의 예산은 더 효율적으

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지방은행은 우리가 다수의 국민이나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아주 소수에게 우리의 의견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얻는 거니까요, 그런 목적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홍보하고 전광판 서울에다 틀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홍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안종혁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안종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종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실이 지금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어딘가에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금도 지금 제가 자세히 —펀드 기금도— 살펴봐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어서, 자료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데 주어진 업무만 하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펀드도 그렇고 경제를 전망할 수 있는 증권 매니저 정도의, 펀드 매니저 정도의 전문 그룹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전체 사업, 큰 틀의 사업들 있죠?

우리가 5년짜리 사업들이 있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걸 큰 틀에서 바라봐 주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을 늘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끔

그렇게 점검해 보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R&D나…….

대학이나 연구회에서 충남에 와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서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들은, 50억이고 100억을 우리가 다급한 기업들에게 시설을 지원해 주고, 아니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나 수소 이런 쪽으로 갈 때 시설을…….

연구해서 결과물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2~3년 안에 성과를 내서 결과물을 갖고 이게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빨리빨리 해 주지 않으면 저는 충남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업 전반으로 볼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또 성과 분석도 합니다만, 저희끼리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의회의 기능이 있어서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기획실에 성과분석팀이 있으니 제3의 눈으로 봐주는 게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저희 자체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행히도 —다행인지 어떤지

는 모르겠지만— 충남연구원하고 했는데 충남연구원이 그동안 산업 경제 쪽에서는 진정성보다는 휘방꾼 노릇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엇그저께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내연기관의 엔진 부분은 109개의 기관이 있는데 —109개 기업이 있어서 전달 장치까지 하면 200개의 기업이 미래차로 전환해야 되는데 —작년에 설문한 것을 321개의 기업한테 회수를 받아서 올해 현 지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해서 제가 충남연구원장한테 엄청 항의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다 산업경제실이 있으니 같이 교차해서 노력하자, 대오각성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나름 노력하는데 위원님들 눈에는 아직도 좀 부족해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부단하게 노력하고 발전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사실 기획조정실의 평가는 행정적 업무로 평가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외부평가를 한번…….

진단을 받아 보거나 아니면 아까 72억 짜리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는 만큼, 그 퍼센티지잖아요.

근무를 몇 % 했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뭔가를 하긴 하고 예산이 많이 가긴 갑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별로 오는 게 없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모빌리티·AI 이거 아니면 과연 다른 산업에 가는 게 있는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사실

자원은 충남이 많아요, 해양 자원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해양에 경제로 이끌어 낼 무궁한 자원들도 있고, 산림환경과 관련된 경제로 이끌어 낼 자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선언을 하고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는 부분들은 아직 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해양 자원이든 산림환경 자원이든 자연 자원이든 이런 것들을 경제 쪽으로 더 부각시키면서 탄소중립경제특별도에 맞춰가면 중앙에서 볼 때 우리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결산을 보면서 뭔가 하긴 했는데, 돈은 들어갔고 결과는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2023년도에 점검을 하셔서 2024년도 계획은, 내년도 예산은 결국 8월 말이면 거의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결산을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가닥을 잡아 주고 그다음에 정리할 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경제 사업도 새로운 먹거리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6월 말이면 탄소중립 경제 이행 계획이 완성됩니다.

다음 회기 때는 위원회에서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저희가 고언을 들어서 더 보완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사항…….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숙**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실에서 고생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고생만 했지 충청권 시도 간 이견으로 성과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 집행 내역을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억이네요, 집행한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그게 용역비라고 그러는데 용역비가 4억입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이 부담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3억이죠.

충남·대전·세종…….

○**이종화 위원** 아, 세종은 아니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세종까지입니다. 충북은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 아, 충북은 아니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충청권이 4개 시도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 4개 시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4억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한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총예산이 2억인데 우리가 1억 2500을 대고 타 시도는 2500만 원씩 댔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왜 우리만 그렇게 많이 내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때는 저희가 주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홍보비에서 온라

인 광고·홍보 이런 거는 - 유튜브나 뉴스채널 이런 건 - 이해하는데 옥외 전광판 광고를 서울에만 가서, 서울 용산, 경복궁, 영등포, KTX 용산역 이런 데에 한 5000만 원 이상 집행을 했는데 먼저 우리 충청권 시도 간 의견 조율이 더 중요한데 서울 가서 충청권에 은행 만들겠다고 암만 홍보하면 뭐 합니까?

우리 충청권 시도 간 서로 의견도 조율이 안 되는데.

이거 헛된 데만 예산을 많이 집행한 것 같네요.

충청권 은행이, 지방은행이 있으면 물론 좋기야 하지만 그게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점포를 설치하는데 많은 점포가 있어야 되고 점포를 설치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들어간만큼 은행에서 경제적인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전에 있었지만 없어진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런데 충청권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성과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충청권 시도 간 의견 조율부터 먼저 됐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꼭 봤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성과 목표를 낮게 잡은 부분도 있지만 일을 잘못해 놓고 다 완료됐다고, 그래서 부실 공사라 다시 또 해서…….

작년도 말에 문도 못 열었는데 그랬는

데도 성과는 100%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은 성과보고서를 좀 잘못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목표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보고서도 정확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너무 잘못 왔는데요, 기금은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만 있나요, 산업경제실은?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요, 정의로운 전환기금도 있고요, 사회적경제…….

○ **위원장 김명숙** 예, 기금과 관련된 것들은 다 세입 세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세출 불용액,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뭐가 불용인지 물어보면 실장님이 답변 못 하시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는 실장님이 보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해 주시고요,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펀드와 관련해서도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연 내역이 있는데 출연 내역뿐만 아니라 회수도 있을 거고요, 그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각보다 경제실 결산이 수월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승인은 할 수밖에 없

는데 -제도가 그러니까요- 부서 점검은 실장님께서 꼼꼼하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 **위원장 김명숙**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룡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자료는 되는 대로, 오늘은 퇴근 시간이 넘었으니까 내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좀 시간이 걸리는 자료도 빠짐 없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안종혁
이종화 이재운 이지윤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 **출석공무원**

〈산업경제실〉

실장	유재룡
경제기획관	안 호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산업육성과장	최재성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 **속기공무원**

문별아 전지혜